

행정간행물등록번호
A0045-65300-57-9801

KIHASA
정책연구자료 98-01

飲酒의 社會文化的 意味
- 共同體 文化를 中心으로 -

韓 泰 善

韓國保健社會研究院

머 리 말

어느 사회에서나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술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적당한 음주는 능동적인 행동과 사고를 유발하고 유쾌한 기분을 갖도록 자극하며 불안을 완화시키는 등의 약리 및 심리적 효과가 있고, 또한 신체적으로는 심장기능에 도움을 준다고 한다. 그러나 지나친 음주는 여러 가지 질환과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어 身體的·精神的·社會的 機能에 치명적인 損傷을 초래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나친 음주의 결과로 발생한 질병, 사망 등에 따른 經濟的 損失 費用은 1995년에 약 9조 5,670억원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1995년도 GNP의 약 2.8%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특히 우리 사회는 술에 대하여 관대하고 社會的·集團的으로 飲酒를 하는 매우 독특한 飲酒文化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적당히 마시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폭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우리의 음주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政策方案의 마련은 내적 가치관과 관련된 社會文化的 要因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공동체 문화를 중심으로 한 社會文化的 接近方法으로 우리나라 음주문화의 독특한 성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는 韓泰善 漢陽大 社會科學大 學長에 의해서 작성된 것으로, 여기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研究者의 個人的인 의견이며, 연구원의 公式 見解가 아님을 밝혀 둔다.

1998年 6月

韓國保健社會研究院

院長 鄭 敬 培

目次

第1章 序論	7
第1節 深刻的 飲酒問題와 그 接近方法	7
第2節 範疇	12
1. 共同體 및 個人	12
2. 範疇에 따른 飲酒의 類型	16
第2章 現代 韓國의 共同體的인 飲酒類型	20
第1節 共同體 主導的인 飲酒類型	21
1. 權威主義的 飲酒形態	24
2. 儀禮指向的 飲酒形態	28
3. 소결: 體制指向的 飲酒類型	30
第2節 個人의 集團指向的 飲酒類型	31
1. 소결: 中間集團 指向的 飲酒	37
第3節 現代 韓國人의 破片的 飲酒類型과 그 行態	38
1. 社會的 危機狀況 I	42
2. 社會的 危機狀況 II	46
第3章 現代飲酒行爲의 傳統的 性格	49
第1節 傳統社會에서 본 共同體的 飲酒行爲文化	49
1. 돌림술의 共同體的 性格	50
2. 祭祀文化의 飲福節次와 共同體的 性格	52
3. 소결: 共同體 生活의 媒介手段으로서 飲酒	56

第2節 現代社會에 殘存하는 飲酒行態	57
1. 權威主義의 結果로 나타난 盲目的 飲酒行爲	58
2. 儀禮主義의 結果로 나타난 形式的 飲酒行爲	62
3. 中間集團 指向의 結果로 나타난 常習的 飲酒行爲	63
第3節 傳統的 飲酒行爲의 社會的 結果와 그 解析	66
第4章 結論 및 政策提案	70
第1節 飲酒를 文化的 媒介體로 본 소결	70
第2節 飲酒問題에 대해 다른 媒介體로 代替시키는 政策的 提案	72
1. 體制指向的 性格에 關한 政策方向	74
2. 共同體 指向的 性格에 대한 政策	79
參考文獻	83

表 目 次

〈表 1-1〉 共同體와 個人을 軸으로 한 飲酒行態의 類型	17
〈表 1-2〉 現代 韓國社會의 飲酒形態	19
〈表 2-1〉 個人問題의 相議 對象	35
〈表 2-2〉 主觀的 階層歸屬意識	45
〈表 2-3〉 社會的 移動 可能性에 대한 態度	46
〈表 4-1〉 先行研究者와의 單純比較	73

第 1 章 序 論

第1節 深刻한 飲酒問題와 그 接近方法

음주문제는 한국사회에서 하나의 커다란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지나친 음주로 인해 개인의 신체적 질병 및 정신건강이 손상되는 것은 물론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키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음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질병 및 사고는 그 당사자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컨대, 알코올 중독의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음주는 반사회적 행동, 비행, 정신장애 및 정신분열증의 원인으로서 그 파장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의 경우처럼 음주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가 상대적으로 강한 사회일수록 음주의 피해는 곧 막대한 사회적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개인의 정신적 건강의 문제가 가족관계 및 인간관계의 문제로 직결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음주로 인한 일탈행위와 사고가 우리사회에서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음주와 관련된 범죄 및 폭력 사건이 전체 범죄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최근에는 청소년 비행문제와 관련하여 음주가 청소년들의 일탈행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알려진 바 있다. 세계적으로 교통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음주로 인한 피해가 높다는 사실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더군다나 음주는 마약과 같은 유해한 약물로 진행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곧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어 보다 복잡한 결과를 낳는, 다시 말해 한 사회의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노인철은 그의 연구 “음주의 경제사회적 비용과 정책과제”에서 말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경우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인 비용이 매년 GNP의 약 2.8%인 14조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한다.¹⁾ 그리고 음주와 관련하여 야기되는 사고와 그로 인한 각종 질병 등의 폐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이제 이러한 음주문제의 심각성은 사회경제적 비용의 증가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면으로서 파악해 두어야 할 성질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때가 되었다. 음주는 음주행위의 주체인 사회구성원, 그 사회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 그리고 음주와 관련한 사회환경이 상호관련되어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주를 어떻게 인식하고 취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사회생활의 중요한 기능적 요소가 될 수도 있고, 심각한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에 보다 종합적이며 균형적인 시각에서 음주문제를 접근하려는 시도가 요구된다 하겠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시책이나 유관기관들의 대처방안은 음주문제를 상대적으로 어느 한 측면에 국한시켜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음주문제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도 대개 음주행위가 사회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는 사실확인에 치중하였다. 즉, 소수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대개의 연구가 파편적인 것으로 신문이나 방송을 통한 저널리즘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것의 근원적 원인에 대한 접근이 비교적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음주요인과 그 대책에 대해 보다 사회적이며 구조적인 수준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시도가 없었던 것이다.

1) 노인철, 서문희, 김영래, 『음주의 경제 사회적 비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이 글에서는 음주행위 및 태도형성에 있어 한국사회의 특징적 요소는 무엇이며, 그것이 지닌 함의는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특히 음주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을 문화적인 요인, 다시 말해 전통 문화적인 요인으로 분석하는 데에 그 초점을 맞춘다. 비록 현대사회가 새로운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관료주의 국가라는 지배적인 사회체계의 등장에 의해 옛 것과의 심각한 체계적 단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 사고와 습관은 계속 되며 그것들이 새롭게 변용되어 살아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통문화는 아직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대인의 의식구조와 사회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준거틀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체 문화의 틀로 분석할 때 음주란 공동체적인 규함을 매개하는 일종의 매개체(media)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본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밝혀둔다. 다시 말하여 한국사회에서는 음주행위는 술 그 자체의 즐거움보다는 공동체 규함의 수단으로 널리 행해진다. 그러한 과정에서 결국 “술이 술을 마시는 경지”에 까지 이를 수 있으며 급기야는 음주로 인한 사회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혀 보고자 한다.

오늘날 한국인의 음주행태는 때로는 아름다운 미풍양속의 일면으로, 때로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병리적 현상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 글의 주된 목적은 음주행위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다. 다만 현대 한국사회의 음주행위가 어떤 유형으로 감지될 수 있으며 그것이 어떠한 문화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가를, 그리고 어떠한 매개체의 요소들로 대체될 수 있는가를 드러내고자 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서 음주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 글에서는 음주의 사회적 의미를 통해 한국인들의 다양한 음주양태를 분석하

여 한국사회의 독특한 음주양태를 밝혀 보자는 것이다. 그러한 음주양태는 하나의 사회적 사실로서 그것이 고정된 것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개별행위자들에게 대하여 일종의 외적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는 행위양식으로 존재하며, 따라서 그러한 측면이 부각될 때 비로소 대안적 정책을 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사회의 음주라는 사회현상은 상호작용 하는 개인들의 집합적 행위이지만 더 이상 개별행위자의 속성으로는 설명되어질 수 없는 어떤 사회적 실체, 즉 사회적 사실을 구성하는 행위, 또는 사회적 음주행위와 행태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 사회가 음주에 대해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가 하는 점은 곧 그 사회의 음주양태와 사회문제가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가 혹은 상호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이 글의 주된 논지이다. 특히 음주의 행태와 그 요인이 한국사회의 전통적 공동체문화와 깊이 연관되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공동체적 사고가 음주양태라는 하나의 사회적 사실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관건이 되는 주요요인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사회학적으로 볼 때 한국 공동체문화는 일종의 사회적 신(체)이며, 그 공동체의 질서를 지킨다는 것은 인간 개개인이 지켜야 할 가장 고귀한 가치관이다. 음주행위란 집단과의 교합을 위한 매개체로서 발견되는 것이지만 개인적인 행위로 보기는 힘들다고 보고 그 점을 가지고 이 글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한국 사회에서 음주행위가 갖고 있는 한 가지 의미는 어쩔 수 없이 마시는 외적인 구속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술이 좋아서, 건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술을 마실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은 음주행위 그 자체를 보다 사회적인 면에서 접근하여 그 의미를 찾아보려는 데 관심을 두고자 한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사회적이라는 말은 음주행위 그 자체에도 목적이

있겠지만 그 반면에 미디어 혹은 매개체로서의 수단으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관계를 맺게 하는 방법으로서의 음주 행위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음주는 개인이나 개인 상호간 또는 집단과 집단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즉 세계적이며 보편적인 현상으로 존재해 왔다. 특히 전통적인 공동체사회에서 음주는 자기 집단의 중대사안을 결정하고 협의하는 의례나 회의시 거의 예외 없이 행해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술자리’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속마음이나 의견을 체면에 구애받지 않고 격의 없이 드러내 놓을 수 있어서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보다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본다.²⁾

미드(Mead)에 따르면 우리 인간의 자아는 주격 자아(I)와 목적격 자아(Me)라는 두 가지 차원간의 변증법적 과정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한다. ‘술자리’라는 공간은 사람들로 하여금 남이 보는 나(Me)와 자신 스스로가 보는 나(I)의 거리적 격차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마음에 묻어두었던 본심을 그 자리에서 드러낼 수 있게 되는 데에는 ‘술’이라는 요소가 하나의 수단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과 같이 개인이 원자화되고 소외되어지는 현대 사회의 비인격적이고 건조한 현실 속에서 음주는 원자화·파편화 되어진 개인들의 소외된 자아와 공동체 사회의 목적격 자아와의 사이에서 생긴 격차를 좁히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음주는 개인과 공동체를 잇는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은 부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만 우리 공동체의 특성에 따라 한국적 음

2) 이미 고조선 시대부터 산신제를 지낼 때, 막걸리를 빚어 제사에 썼다고 하니 술이 지닌 매개적 역할은 공동체적 유대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라 할 수 있다.

주행위의 특성을 밝혀 볼 수 있을 것이며, 이 특성은 한국 음주유형의 요인을 여러 분야에서 접근하여 들어가는 과정에서 서서히 밝혀지게 될 것이다.

간단히 말하여 한국사회에서 음주는 개인과 공동체를 연결시켜 주는 가교의 성격이 강하다는 데에 그 특성이 있다. 또 한 가지 현대 한국 사회의 음주 행위가 지니는 특성의 일면은 상당히 타인 지향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음주 행위가 술 자체를 즐기는 음주행위보다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보다는 공동체적인 차원에서의 음주행위가 우리사회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다시 한 번 반복하여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다. 한국 사회의 음주행위는 공동체 중심적인 면이 강하다. 한편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매개체로서의 음주행위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매개체로서의 역할의 정도가 지나치게 반복될 때에 알코올 중독이라는 음주행위의 개인적 결과에 이를 수 있을 것이나,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 아님은 이미 주지한 바 있다. 다만 음주행위를 사회적 관계를 맺는 미디어로서 집중 분석해 볼 것이며, 그 정책대안을 제시함에 있어서도 어떻게 다른 미디어로 대체될 수 있는가에 대한 제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이 논문이 음주를 사회적 미디어로 볼 때 그 논리적인 범주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

第2節 範疇

1. 共同體 및 個人

우리 사회의 전통적 특성은 공동체였으며, 이런 특성은 어떤 나라

나 사회를 보더라도 보편적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공동체가 우리 전통에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 특성도 이념형적으로 보아서 거의 타 사회의 것들과 별로 다름이 없다. 전통적인 요인과 개인적인 요인에 대해서 좀더 부연한다면, 전통사회에서의 개인은 대부분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일체감(identification)을 갖고 있었다. 혼자 길을 가다가도 앞에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와 동행하고자 하며, 혼자 일할 때 사람이 지나가면 불러서 막걸리를 함께 마신다. 집안에 행사가 있어 음식을 장만하면 이웃이나 친지들을 초대하여 기쁨을 함께 나눈다. 이러한 일체감이 전통적 인간관계의 본질이었다. 다만 우리의 전통 공동체의 특성은 혈연적인 요소들로 구성되어 같은 지역 내에 모여서 살기 때문에 크게 보아 가족적인 특성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가족적 특성은 같은 조상숭배의식을 가질 때에만 그 결속력이 한층 더 강화된다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 전통공동체의 중요한 특성을 이루는 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런 가족 중심적이며 조상 숭배적 공동체의 특성은 그것이 유교적인 지도이념 하에서 유교의 의례주의적인 요소가 첨가되며 부각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음주행위에 대한 요인을 설명함에 있어서 공동체와 개인이라는 두 개의 범주를 가지고, 이러한 공동체적인 요인과 그 대책장구를 위한 모색과 분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대에 이룰수록 이 공동체적인 음주요인이 조금씩 약화되면서 개인적인 요인이 부상되기 시작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개인적인 요인은 아직 공동체적인 요인에 비해서는 극히 미미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공동체적 요인과 개인적인 요인을 분석할 이 글의 지면도 4:1 정도로 할당하였음을 미리 밝혀 둔다.

현대에 들어와 사회(society)라는 개념 속에서의 개인의 정체성은 이전의 전통사회처럼 타고나거나(natural), 부여받는(inherited) 것이 아

나라 자신들의 의도와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형성된 자율적인 결사체를 통하여 획득하도록 조장된다. 여기서는 자신의 개성이 부각되고 공동체 의식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우리(we)’라고 하는 것이 어느 특정한 조건하에서만 사용되어지는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나름대로의 타당한 행동양식이 나타나며 음주행위도 마찬가지이다. 인간관계 역시 계약적인 유대관계로 바뀌며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한 매개체의 하나가 ‘술좌석’이라 할 수 있다.

전통사회와 현대사회를 퇴니스의 이념형으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전통사회에서는 동질성(homogeneity), 인격성(personality), 통일성(integrity), 연대의식(solidarity), 조화(harmony) 등의 특징들이 나타나고, 현대사회에서는 그와 반대로 이질성(heterogeneity), 비인격성(impersonality), 익명성(anonymity), 파편화(fragmentation), 갈등(conflict) 등의 특징들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공동체에서는 그 공동체의 뜻을 거슬리는 의미에서의 개인주의를 용납하지 않았으며 개인은 공동체의 유기적 구성원으로 존재할 뿐이었다. 개인의 탈선행위는 용납되지 않았으며 공동체의 가치 규범과 어긋나는 행동은 매우 신랄하게 정죄되었다. 이것은 집단의 동질성을 보존하기 위해서였는데, 여기에서는 개인의 의견은 수렴되지 않았다. 누구에게나 이미 만들어진 객관적 규범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개인은 그 자체로 인정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행동규범은 익명성의 환경에 처할 때와 인격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때에 현격하게 달라진다. 다시 말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그들의 공동체를 떠나면, 그 순간부터 자신들의 행동을 감시하거나 규제하는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공동체내에서의 인간관계에서는 권위가 언제나 존중되었으며, 친족의 혈연관계는 안정감과 자기 만족감의 근거가 되었다. 이 안에서는 절대적인 연대의식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친족으로부터 거리감을 크게 느끼지 않았다.

반면에 산업화와 도시화라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은 전통적 공동체를 와해시킴으로써 개인에게 익명성의 고독과 불확실성의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이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타인으로부터 점점 더 고립되어 철저히 개인으로 남게되었다. 예컨대 도시에서는 모든 인간관계가 자기 이익에 따라서 형성되거나 해체되어 버리기 쉽다. 그렇게 되면 인간관계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이용되어지는 수단으로 전략해 버릴 위험이 높게 된다. 전통사회에서는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이웃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으나, 이제 변화된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만남의 필요성이 약화되었다. 따라서 사회의 중심이 공동체에서 개인으로 이전하였으나, 개인은 공동체의 몰락으로 고독감과 이질성이라는 문제를 안게 된 것이다.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음주행위는 그 어느 쪽으로나 공통 요인이 될 수 있게 된다. 고독함 속에서 책을 읽던가, 술을 마시는 것은 전적으로 개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러한 현상은 또한 개인들로 하여금 목적의식의 결여, 의미와 주체의식 등을 상실해 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개인주의의 이와 같은 심화현상은 규범이나 소속감정이 약화된, 그래서 불안정감을 느끼는 사회 병리적 인간들을 양산하게 된 것이다. 이런 사회 병리적 현상은 술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보완하려 할 때 더 무서운 병리를 양산할 지도 모른다.

이처럼 변화된 사회에서 인간의 삶의 조건을 규정짓는 두 가지 질서를 공동사회(Gemeinschaft)와 이익사회(Gesellschaft)로 구분할 수도 있다. 공동체(community)의 특성은 개인의 개성(individuality)보다 공동유대(common bond)가 더 강조되는 사회를 뜻한다. 따라서 개인적 정체성인 '나(I)'보다도 공동체적 정체성인 '우리(We)'가 더 강하게 나타

나는 특징이 있다. 사람들은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 어느 정도의 자기에게 주어진 사회적 체면을 유지할 수 있고, 권위와 불평등도 어느 정도 인정하며 사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우리 사회는 전통적인 집단을 중시하는 “우리” 문화와 현대적인 개인의 “나”를 중시하는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 이것은 두 개의 문화가 평행적으로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결합한 새로운 집단을 중심으로 문화가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중간집단의 문화’라 할 수 있으며, 소문자 “우리(we)”라는 공동체적 집단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의 음주행태는 이 중간집단 지향적인 면에서 분석될 것이다. 중간집단이란 회사나 단체, 클럽이나 동호인 등 나아가 각종 직장 등을 지칭하는 말이다.

2. 範疇에 따른 飲酒의 類型

따라서 우리는 공동체와 개인을 축으로 하여 음주행위의 유형을 두 가지 틀(framework)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그것은 개인의 음주행위와 집단 지향적 음주행위이다. 여기서 전자는 현대사회의 개인 또는 “나”를 중심으로 하며, 후자는 전통사회의 집단 또는 “우리”를 중심으로 하여 개인중심과 집단중심 사회라는 이론적 틀을 제공해 준다. 그러나 이 이분법적인 구분은 사회적 실체를 분석하기 위한 일차적 분석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 공동체와 개인을 본 연구에 있어서 2개의 범주로 삼을 때, 그 변수는 논리적으로 구분 지어 4개로 구체지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여 음주행위의 요인을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구분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것이며, 다만 그런 시도 속에서 현대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복잡다단한 사회적 관계를

임시적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분석적인 구분은 어디까지나 한국인들이 사회적으로 왜, 어떻게, 어떤 형태로 음주하는가 하는 구체적 현상에 이르는 임시적인 가교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밝혀 둔다.

전통 공동체와 개인을 중심으로 한 음주요인 형태를 도표로 <表 1-1>에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表 1-1> 共同體와 個人을 軸으로 한 飲酒行態의 類型

	전통사회	현대사회
공동체(We)	순전히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음주(1)	개인이 공동체를 지향하는 음주(3)
개인(I)	공동체가 개인을 통제하기 위한 음주(2)	순전히 개인적인 면으로서의 음주(4)

위의 네 가지 요인중 첫째로 순전히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음주요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군대집단을 위시해서 명령계통으로 움직이는 각종 조직을 들 수 있겠다. 비록 현대의 기업이라 할지라도 그 운영방법에 있어서 순전히 조직공동체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이라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음주행태를 순전히 공동체 중심으로서의 음주행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공동체가 비교적 자유로운 개인을 통제하기 위하여 술을 매개체로 사용하는 경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단합대회, 신입생 환영회 및 각종 회동, 회사나 조직에서 개인들을 규합하기 위해 술자리가 마련될 때, 이러한 음주행위는 두 번째 유형에 속할 것이다.

셋째, 개인이 해당 집단에 귀속의식을 갖기 위해 술자리를 가지려 할 때 이것이 세 번째 유형에 해당될 것이다. 앞서 거론한 두 번째 유형과 세 번째 유형이 가장 중요한데 이 두 가지 유형이 현대 한국사회

에서 공동체와 개인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음주유형의 가장 많은 부분을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유형이 보다 공식적이라면 세 번째 유형은 그에 비해 비공식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개별적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즉 각 개인이 사회관계를 만들거나 유지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이루어 나가는 음주행위라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다른 유형들보다 복합적이면서도 다양한 음주유형이다. 각 개인이 자기의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이용되는 미디어로서의 음주행위는 특히 앞으로 한국사회가 정보화사회로 나아갈수록 더욱 더 복잡해질 것이다.

이 맥락에서 한 가지 지적할 점은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공통적인 요인에 관한 것이다. 환언하여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공통점은 모두 집단 지향적이라는 것이다. 집단 지향적이라는 면에서는 같지만 전통적인 공동체의 특성이 혈연, 지연, 학연이었다면 현대적인 공동체의 특성은 집단 특히 중간집단 지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두 번째 유형이 집단공동체 중심으로 개인을 공동체 속으로 규합하려는 행태로서 음주요인을 설명한다면, 세 번째 유형은 개인이 중간집단을 지향하여 중간집단의 구성원이 되고자 하는 행태로서 음주요인을 설명해 볼 수 있다.

이로써 오늘날의 음주형태는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말하여 한국사회의 중간 집단적 형태는 <表 1-2>에서와 같이 2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반복하는 말이지만 다음의 2가지 형태들은 역시 개념적 형태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현대사회에서 실제로 그런 행위유형이나 행태가 어떤 면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질문이며 동시에 그 질문과 여하히 연관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다음의 형태는 어디까지나 실제현상을 담을 수 있는 임시적인 가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表 1-2〉 現代 韓國社會의 飲酒形態

	현대사회
공동체집단	중간집단이 개인을 규합하기 위한 음주
개 인	개인이 중간집단을 지향하여 구성원이 되고자 하는 음주

여기에서 우리는 “중간집단”을 세분해서 볼 수 있다. 전통사회의 전체집단을 지향하는 중간집단과 개인을 중요시하는, 또는 개인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결사체(association)의 의미를 지닌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유형은 자연적 또는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동질성을 지닌 개인들로 구성되는 집단을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종친회, 향우회 또는 동창회 등이 그것이다. 반면 후자는 같은 이익, 즉 정신적 또는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회사, 정당, 조합 등의 이익단체들을 예로 들 수 있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의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공동체적 중간집단이 지니는 성향이다. 현대사회에서 형성된 이러한 공동체적인 We와 중간집단적인 we를 구성하는 집단들의 형태는 그 변화에 따라 각 집단의 속성 또한 다양하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상당부분이 전통사회의 집단적 속성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우리사회의 중간 집단은 그것이 자연적인 동질성을 지향하는 집단이거나 결사체(association)의 의미를 지닌 자발적인 이익집단이든 간에 그것과는 별개로, 그 집단을 움직이는 지배적인 성향 또는 문화는 아직도 전통사회에서처럼 권위주의적이고 의례 중심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성향의 강화가 현대 한국의 집단적 음주 행위에서도 상당부분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第 2 章 現代 韓國의 共同體的인 飲酒類型

이미 지적했듯이 음주행위의 첫째 유형은 철저한 공동체주의적 요인이다. 철저한 공동체주의적인 조직들이란 명령과 복종으로 엄하게 운영되는 집단을 뜻한다. 이 첫 번째 유형의 음주행위에 대한 조사대상은 군대 등을 위시한 엄격한 명령계통이 따르는 거대한 집단에서 찾아볼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그 영역에 대한 연구는 별도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잠시 보류하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미 서술한 바 있는 네 가지 요인 대신 세 가지의 음주행위를 일으키는 요인만 다루기로 하였다. 첫째, 공동체가 개인을 규합하려는 유형과, 둘째 개인이 집단을 향하여 어떤 면에서든지 소속되려는 노력에서의 음주유형 그리고 셋째, 마지막으로 현대인들이 복잡다단한 면에서 파편적으로 행하는 음주유형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이 셋째 행위는 다만 이념형적으로만 고찰해 보려고 한다는 것을 미리 밝혀 둔다.

여기에서는 전통사회의 공동체적 성격이 근대이후 산업화, 도시화라는 사회변동을 겪으면서 변화하여감에 따라 음주가 갖는 사회적 성격이나 의미를 전통적인 공동체문화에서 볼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며 동시에 음주행태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음주의 사회적 성격이 전통적인 공동체문화에서 볼 수 있는 행동양식이나 규범 등과 여전히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음주행위를 통해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우선 전통사회와 근대이후의 변동사회가 갖는 특성과 함께 음주행위와 행태를 논의할 것이

다. 이것은 각 사회에서 공동체와 개인들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삶의 조건을 규명해 주는 연결고리이며 동시에 요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변화된 현대사회의 특징을 음주현상과 관련지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것을 위해 현대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공동체의 식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전통사회에서는 보다 ‘우리(We)’라는 개념, 서구적 개인주의에서는 보다 ‘나(I)’라는 개념으로 요약해 본다면 이것은 바꾸어 말하여 공동체와 개인이라는 범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념들을 염두에 두면서 현대사회의 특성, 다시 말해 급격하게 변화되어가는 현대사회의 음주행위가 유형화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사회의 익명성이나 기계성, 효율성이나 조직성과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개인들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사회를 연결시키는 미디어가 필요한 때이며 그런 부산물로서 음주행위를 설명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물질적인 이해득실(material interest)이나 가치관과 관계된 이상적인 이해(ideal interest)나 조건 등이 혼합적으로 혹은 배타적으로 나타나는 면으로서의 음주행위도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실상 음주행위는 순기능도 많겠지만 역기능적인 면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병리적 현상과 관련지워 볼 때 그 사회적 요인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노인철의 『음주의 사회적 비용과 정책과제』(1997)는 시의적절한 논문이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음주의 병폐적 현상들은 공동체와 개인의 이해관계에서도 직접적으로 발견되어질 수 있으나, 우선 공동체와 개인의 두 가지 관점에서 한국인들의 음주행위를 분석, 제시해 보도록 한다.

第1節 共同體 主導的인 飲酒類型

우리의 전통사회에서는 유교적 윤리규범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

어 당시의 개인과 공동체생활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특히 모든 대인관계를 지배하는 행위규범으로서의 유교적 가치문화는 당시 공동체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고 협동적 생산관계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될 힘이었다.

유교에서 ‘예(禮)’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 사회를 움직이던 중요한 규범중의 하나였다. 실제 예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전통적인 공동체사회에서는 법 이상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이상적인 예의는 사회적 거리를 얼마나 잘 지키는가 하는 것, 예컨대 선배와 후배, 선임과 후임의 입장을 얼마나 엄격하게 지키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따라서 이런 인습들이 반복되면 결국 인간들간의 상호교호적 관계가 극히 형식주의적인 예의라는 껍데기로 굳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전통사회에서의 주자가례(朱子家禮)는 이러한 인간관계들을 규정해줄 수 있는 예법을 제공해 주었다. 물론 이러한 예법들이 오늘날 그대로 남아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것을 통해 일종의 신분을 확인하고자 하는 양태들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공동체사회에서는 명분(名分)을 지키기 위한 신분주의의 성격을 지녔다면, 현대사회에서는 조직의 서열관계와 같은 의미로 남아있는 것이다.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직원과의 관계 또는 학교 동문회 등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선후배 사이를 구별하고 재확인 하려는 의도들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전 공동체 중심의 전통사회가 각종의 예식과 의식을 통해 결속을 다지며 예법을 행사하고 음복을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날 다양한 조직이나 모임 역시 다양한 이해관계를 목적으로 술자리를 나누지만 결국 그 안에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체제지향적 성격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현대사회의 특징 중 관료화된 거대 조직체계를 들 수 있다.

이 안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거나, 그것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개인은 마치 ‘쇠창살’에 갇힌 격이 되었으며, 삶의 좁은 일상성 속에 매몰되어 버렸다. 이것은 공동체가 와해되면 될수록 더욱더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인간관계 역시 예전의 친밀감이 상실되어 버려 비인격화되어가고, 개인들은 자신의 역할을 기계적으로 순응하여 따라가면 되는 현실이 된 것이다. 이제 개인은 자신의 이익추구에도 진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전통적 의미의 지역공동체 혹은 농촌공동체적인 연대성은 점점더 존재하기 어렵게 되었다. 폐쇄적인 옛 공동체의 문제와 기능, 그리고 권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록 공동체와 개인이라는 범주로 지나치게 단순화시켜 함축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 범주는 결국 우리(we)라는 상태로 새롭게 나타남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 비록 공동체와 개인의 관계가 오늘날 우리(we)로 종합되고 있다고 하겠지만 여전히 우리(we)는 아직 명확하게 규정되지는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할 것이다. 특히 비인격적인 지배체제를 특징으로 하는 관료조직 안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합리한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 직장 안에서 일어나는 빈번한 회식, 그리고 사회적 연출망을 근거로 벌어지는 잦은 소공동체(we)의 특성을 가진 모임들은 현대사회가 비인격화되면 될수록 나타나는 우리로서의 대조적인 현상들이다. 술은 이를 매개하는 수단이다. 공동체에서의 술이 예법을 통해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확인시켜 주는 수단이었던 것처럼, 개별화된 현대사회에서도 사람들은 크고 작은 많은 공동체적인 모임을 구성하는 매개체로서의 음주를 한다. 서구에서의 음주행위가 개개인의 사람들에게 그 자체로서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목적이었던데 반해, 우리사회에서는 타인과의 관계를 위한 매개체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개인들은 전통적이며, 현대적인 두 개의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격적이며 인정적(人情的)인 전통사회의 중간집단에 소속하는 동시에 합리적이고 원자화된 현대의 사회제도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혼합된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대의 개인들은 다양한 사회집단과 제도에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표출하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의 사회적 위치 또는 신분은 점차 파편화되어 버린다. 즉 현대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들 속에서는 일관된 권위와 신분을 유지하기 힘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서로 다른 자신의 이해관계를 목적으로 다양한 집단(association)을 형성하여, 어떠한 일관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개인은 사회와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매개체를 찾게 된다. 우리사회에서의 음주는 바로 그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좋은 매개체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 같다. 직장의 회식자리에서 상사는 부하직원에게 술을 건넨다. 그것을 받은 사람은 주도(酒道)라는 나름대로의 예법을 갖추어 술을 마신다. 물론 전통 공동체적인 의미에서의 음주예법이나 권위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술을 권하고 받는 사람의 음주양태는 서로 간에 자신의 사회적 위치나 신분을 확인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이럴 때의 주도나 예법은 그만 술좌석이라는 매개체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우선 음주의 형태를 요약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1. 權威主義的 飲酒形態

신분과 사회적 위치가 뚜렷했던 전통공동체사회에서는 지배-복종 관계를 사회화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예(禮)를 강조하였다. 특히 유교윤리에 있어서 가족내 질서와 사회적인 질서라는 것은 불가분의 관

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 권위를 내세우는 신분질서와 가족에서의 부모-자녀관계를 확장한 상하관계는 계속적으로 강조되었다. 따라서 음주행위 자체도 사회적 의미의 예법을 중시하여, 선후(先後)·상하(上下)개념이 뚜렷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우리는 권위주의적 음주형태라 임시 불러본다.

이것은 오늘날 대인관계에서도 그 경향이 드러나고 있다. 예컨대, 직장상사가 주선하는 술자리에 빠지면 안된다는 식의 생각을 들 수 있다. 개인의 이해가 우선하고 자신의 견해가 분명하게 표출되는 현대사회에서조차 조직생활은 개인들을 은연 중에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편으로 상사나 선배라는 집단의 리더들이 행사하는 권위의 형태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관료적 위치를 지향하는 개인들의 태도에서도 찾아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전자는 하향적으로 작용하는 권위주의적 음주형태라 할 수 있고, 그에 비해 후자는 상향적인 권위주의적 음주형태라 할 수 있겠다.

하향적 권위주의의 경우 우리사회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대인관계의 선후질서를 지배하고 있는 형태이다. 술을 권하는 데 있어 그것을 제안한 사람의 사회적 위치가 어떠한가라는 것은 그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선택의 가능성을 축소시킬 수 있다. 실제로 술자리에 참석한 뒤에도 건배를 외치며 상대방에게 더불어 마시기를 권하며 강요하는 일반적인 대작(對酌)음주형태에서도 한국적 권위주의의 한 유형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때 권하는 술은 흔히 권위와 사회적 신분을 서로에게 확인시켜주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때가 적지 않게 나타날 때가 있기 때문이다.³⁾

3) 권위란 말의 의미는 그 사용에 있어 유의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사회에서는 이것을 힘(power)과 혼동하여 사용하는 때가 많다. 그러나 전통적 공동체사회에서 권위의 의미는 위에서 억압하려는 힘이 아니고 정신적인 설득력을 함축하고 있었다.

반면에 상향적 권위주의는 상사나 선배의 권위에 대한 인정 또는 형식적인 순응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공동체사회에서 그 구성원들은 존경받는 연장자에 대한 권위를 공식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대해 성심성의껏 예를 표하였다. 연장자가 주는 술은 음복이라하여 받는 사람의 행운을 기원하는 것으로 믿었고, 따라서 감사의 뜻으로 자신의 예를 다하는 것이 미덕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동된 사회에서는 공동체의 의미가 와해되고 개인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그러한 의미의 권위는 많이 퇴색되었다. 단지 자신이 소속해 있는 집단이나 조직의 선임자가 제시하는 권위나 힘에 대해 하급자로서 반응할 때가 적지 않을 것이다. 직장의 상사나 선배가 권유하는 자리는 의무적으로 나가게 되고, 그 권유를 받아드릴 수밖에 없으며 때로는 먼저 술을 올림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재확인하고 인정받으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때가 많을 것이다.

특히 우리사회는 산업화, 근대화의 과정 속에서 권위주의적인 문화를 확장시킬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1960년대의 군사정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물론 이것이 공통적으로 추구하였던 공업화, 근대화, 도시화의 목표는 한국사회에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었다. 고도의 경제성장은 흔히들 “한강의 기적”이라 말하는 기능적 역할을 하기도 했으나 그에 따른 음주행위의 부작용 또한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 때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각 개인 또는 소속집단이 정한 목표를 향해서만 줄달음치며 모두가 한 길로 달려왔던 것이다. 이와 함께 “하먼된다”, “빨리빨리”는 근대화의 상징이 되었으며, 음주형태에 있어서도 건배 대신에 “위하여”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사실 이 “위하여”라는 단어에는 목적어와 동사가 생략되어 있어, 예컨대 목적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충성을 바친다”든지 “봉사한

다”와 같은 동사가 동원되고, 집단이나 목표를 목적으로 택할 때에는 “단결한다”, “최선을 다한다” 등의 동사가 어울릴 수 있는 것이다(여중철, 1994). 따라서 이러한 “위하여”라는 음주양태의 배경에는 목표 달성 지상주의, 권위주의적 영웅중심주의, 집단·지역·부처이기주의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었다.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술이란 기호품 보다는 식품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공동체 생활에서 나누는 필요불가결한 음식의 하나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나아가 음주는 공동체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음식을 나누는 예절에서처럼 음주에서의 예의는 결국 권위주의나 신분주의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이로써 음주양태는 우리사회내 문화적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함께 일을 하다 농로에 앉아 참으로 먹는 막걸리 한 사발이나 제사를 마친 후 함께 나누는 음복술은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권위주의적 경향은 공동체 문화의 일부라 할 수 있는 음주문화에서도 사람들의 신념, 태도, 행동방식을 통해 부질불식간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⁴⁾

권위주의적인 음주행위는 우리사회에서 관행처럼 당연하게 나타날 때가 많다. 권위주의적인 음주행위는 모임에서의 강압적인 행사방식

4) 다음의 사례는 이와 같은 한국사회의 권위주의적 음주형태가 사회문제로 작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여전히 의미있는 문화적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1996년 3월 8일 밤 9시반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모식당에서 마련한 신입생환영 파티에 참석했던 충남대 토목공학교육과 1년생 張모군(19·경북 안동시 안막동), 그리고 함께 술을 마신 신입생 權모군(19)이 의식을 잃어 1명은 숨지고 1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건이 있었다. 이날 사건은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냉면그릇에 소주를 부어 돌리며 2시간 정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의식을 잃고 호흡곤란증세를 일으켜 결국 2명의 신입생이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40여명이 참석한 이날 술자리에선 1.8ℓ(큰병)짜리 소주12병과 2홉(3백60ml)들이 10병을 주문, 냉면그릇에 부어 1명씩 순서대로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동아일보 1996. 3.10일자 참조).

이 잘 나타난다. 그것이 조직적이건 권위적인 군림이건간에 술좌석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할 수 없이 음주에 참여하게 하는 음주양태를 이룬다. 보통 냉면그릇이나 커다란 대접에다 술을 부은 뒤 신입생들이 순서대로 마시고 자기소개를 하게 하는 모습은 흔히 신학기 대학가에서 자주 이뤄지는 방식이었다. 어느 한 경찰조사에서 이 날 피해자인 신입생들의 선배들은 구토용 비닐봉지까지 준비하여 학생들이 자리에서 뜨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이러한 음주관행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으며, 사회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묵인해오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모임의 단합과 친목도모라는 명목하에 대부분 이뤄지지만, 선후배관계라는 것은 상당히 권위주의적인 경향을 띄게 된다. 술을 마시고 안마시는 것 자체를 모임을 주도하는 선배가 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밑에서는 그것을 암묵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돌림술의 형태 역시 음주량이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결정되어 상하관계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권위주의적 형태를 띠고 있다. 이것은 군사적인 계급문화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음주방식과 유사한 것이다. 신입생 환영 파티에서 선배가 사발에 술을 따라주면 한 번에 마시고 사발을 머리에 쓰는 소위 “사발식” 역시 권위주의적인 군사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2. 儀禮指向的 飲酒形態

사회나 공동체에서 공유된 의례를 통해 자신의 권위와 신분을 재확인하려는 형태의 음주행위가 있다. 실제로 이것은 위에서 지적한 권위주의적 유형으로 표출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우리 사회는 각 제도의 운영에 대한 시작, 과정, 종결 등의 절차를 엄한 형식과 의례에 따라 규정해 놓았다. 외면적인 것에 치중하는 이 의례주의는 유교의 형식주의적 질서관과 일맥 상통한다. 이러한 의례

주의 내지 형식주의적인 전통은 작금의 현대사회 내에서도 그 형태를 달리하여 남아 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로 이행하면서 ‘우리(We)’의 개념보다는 ‘나(I)’의 개념이 강해져 전통적 의미의 공동체는 와해되었지만, 변동사회에서 소외되고 파편화된 개인들은 끊임없이 ‘우리(we)’라는 중간집단을 찾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비인격화된 현대사회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개인들이 인격적이며 애정이 있는 전통사회적 중간집단을 지향하는 것과 연관이 깊다. 또한 현대사회의 특징 중의 하나인 개인들의 자아정체감 상실과 함께 신분에 대한 사회적 정체감도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겠다. 따라서 개인들은 사회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재확인 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였으며, 그 수단 중의 하나가 음주 미디어인데 의례적 절차나 규범을 지키는 수단 중의 하나도 역시 음주 미디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음주행위는 사회적 권위와 신분의 확인에 있어 중요한 것으로 작용하였다.

가례(家禮)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예법절차들은 오늘날 전통사회에서의 복잡성과는 또 다른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여전히 사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다. 음주행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예전부터 음례(飲禮)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어져오고 있다. 앞에 관례(冠禮)에 대한 논의에서도 지적했듯이 웃어른이 주는 술을 통해,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나이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 주도(酒道)를 익힘으로써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덕스러운 일임을 인지하는 것이 전통사회에서의 특징이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의례적 전통은 남아있다. 예를 들면, 술자리에서 대접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그리고 상하관계 등의 구분에 따라 나름대로 의례적인 절차를 따르게 된다. 결국 이것은 술자리를 통해 자신들의 신분이나 위치 그리고 권위가 확인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사회처럼 대접문화가 관행화되어 있는 기업경

영방식은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기업뿐만 아니라 관료사회에 있어서도 이러한 관계는 분명하게 유지되고 있다. 청탁을 하는 쪽과 받는 쪽은 서로간의 위치를 암묵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그것이 실질적인 것이 아닌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양자간에는 자신들의 권위와 신분의 위치확인에 대한 공통된 견해를 나누고 있는 것이다.

음주는 우리사회에서 주로 이러한 관계들을 보여줄 수 있는 매개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사업상 어쩔 수 없이’ 마련한 술자리는 결국 서로의 위치가 어디이며, 어떠한 관계인가를 확인하는 자리인 것이다. 자신보다윗사람에게 대접을 한다는 것은 곧 예의를 갖추는 것, 다시 말해 권위와 사회적 신분의 차이를 의미한다. 오늘날에 와서는 이러한 의례의 의미는 그 절차와 방식만 강조될 뿐, 윤리적 가치나 신념은 형식주의화 되어 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사회의 공동체를 지향하려는 사람들의 의도는 그러한 음주양태들 속에서 쉽게 유추해 낼 수 있는 것이다.

3. 소결: 體制指向的 飲酒類型

지금까지 살펴 보았던 권위주의적인 음주형태나 의례주의적인 형태를 하나로 진단하여 보면, 체제지향적 음주로 유형화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의 전통사회에서는 유교적 윤리규범이 모든 대인관계를 지배하는 행위규범으로서 공동체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고 협동적 생산관계를 지탱하는 지대한 역할을 담당했다. 오늘날 현대에 이르러서는 전통사회의 그것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몇몇 점에서 일치된 모습을 보인다. 특히 전통사회의 신분주의적 성격과 맥을 같이 하는 조직의 서열관계를 들 수 있다. 그리고 현대사회는 공동체-개인의 범주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서열관계를 재확

인하고 조직내 자신의 일관된 위치를 확인하려는 수단으로서 술은 매개체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음주양태는 권위주의적 음주형태와 의례지향적 음주형태 두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권위주의적 음주형태는 주로 사회적 권위를 내세우는 조직내 서열관계를 확인시켜주는 수단으로서 술이 이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1960년대 군사정치와 1970년대 초의 새마을 운동 등으로 목표달성 지상주의, 권위주의적 영웅중심주의, 집단 지역 부처이기주의라는 성향이 두드러지면서 음주양태에도 “위하여” 혹은 “사발식” 등의 권위적인 색채가 들어가 있는 음주형태가 나타난다. 둘째, 조직내 제도 운영상 엄한 형식과 의례의 규범이 사회적 권위와 신분 확인 측면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있어서 의례주의적 음주형태는 아직 그 전통으로 남아있다.

이와 같이 현대사회의 술은 다양한 조직이나 모임의 서열관계나 위치 혹은 그 조직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성원들 간의 조화와 협력 등을 확인시켜주는 수단으로서 사용될 때가 많다. 결국 해당 공동체의 단합과 능률을 높이는 체제지향적 특성으로서의 음주행위라고 볼 수 있다.

第2節 個人的 集團指向的 飲酒類型

전통적 공동체사회에서 개인은 제한된 공간 속에서 자신이 소속한 공동체를 통해서만 규정될 수 있었다. 그래서 자신들(We) 스스로를 확인할 수 있는 내부의 공동체의식이라는 것은 단지 외부세계의 공동체(out-group)에 대한 감정을 통해 얻어지는 연대의식이었다. 그들에게 있어 세계의 전부라는 것은 곧 자신이 소속해 있는 공동체만을 의미하였던 것이다. 한국인들의 행동양식 중에 자기 친구에게는 지나칠

정도로 인정과 선의를 베풀면서도 낯선 이방인에게는 인색하고 몰인정하게 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폐쇄적 공동체의 폐쇄적 연대의식이 강하게 발로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개인을 공동체가 아닌 이기적 욕구를 추구하는 자기중심적인 개별구성원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를 우리는 개별주의(particularism)라고 한다. 전통적인 순응주의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개인주의가 강조될 때 개별주의적인 협동, 즉 음주행동은 더욱 자주 나타난다. 반면에 우리 사회의 변동과정은 전통사회와의 구조적 또는 체계적 단절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변용되어 개별주의적인 이러한 “행동”은 개인들의 의식구조와 사회를 지배하는 문화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으로는 관습과 전통을 폄하하면서도, 새로운 가치규범이나 지향점을 소유하지 못해 개인은 뿌리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따라서 현대사회의 개인은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로부터 소외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정체성으로부터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제 공동체와의 결별은 전통사회에서처럼 절대가치가 인정될 수 없이 스스로 자신을 책임져야만 하는 무거운 고독감을 안게 되었다.⁵⁾ 이러한 조건 하에서 개인들은 개인과 이전 사회의 공동체를 연결시켜 주는 중간집단을 추구하는 경향을 갖게 된다. 특히 우리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현대사회의 합리적이고 편리한 물질문명에 대한 호감에

5)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뒤르케임(1858-1917)은 개인주의의 병리적 영향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공동의 문제의식과 공동의 목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개인의 근경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집단적 연대의식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감정이나 생각을 계속적으로 상호교환함으로써 서로에게 의존하며 협력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서 고민해야 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나친 개인주의는 병리적 현상을 강화시킬 수 있다. 개인은 矮小한 자신보다 더 큰 것에 대해 애착을 갖고 신념이나 태도 등을 방향지를 수밖에는 없는 것이다.

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져온 이면(裏面)의 병폐현상에 대해서는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다. 그것의 한 방편으로 사람들은 집단으로 되돌아가려는 지향성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전통적인 공동체에서는 다양한 의식들(social rituals)⁶⁾을 중심으로 연대의식과 결속력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 이 때 다양한 의식들은 함께 소속된 개인들을 불러 모아 만나게 해주는 일종의 장(場)이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는 아직도 이러한 공동체적인 관계유형이 일상화되어 있다. 먼 일가친척, 혹은 실제로 특별한 관계를 갖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이러한 의식의 장을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현대사회의 개인-공동체라는 유대관계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 사회가 다변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교차하면서 만남의 종류나 인간관계의 범주 역시 확대되어 복잡해졌다. 반면에 전통적 의미의 공동체라는 성격은 약화되고 직업적 이해관계나 실리에 입각한 사교나 참여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제반 상황 하에서 의식은 관계지향을 추구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으로 술자리를 만듦으로써 ‘윗사람에게 얼굴도장

6) 한국인의 중요한 일과의 하나로 일상화되어가고 있는 사회적 의식들을 그 취지와 양태에 따라 이영자(1996)는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바 있다. 여기서는 논의의 전개상 각주에서 간략하게 요약 제시해 보고자 한다.

- ① 기념의 의식: 시작과 마무리를 공표, 기념하거나 개인과 집단의 생활에서 중요한 계기들을 기념하기 위한 의식들. 그 예로서 입학식, 졸업식, 신년하례식, 송년회, 시무식, 종무식, 출판기념회 등 각종 기념식들을 들 수 있다.
- ② 관혼상제: 혼례, 장례, 제례의식 등 대체로 전통적인 의식들.
- ③ 정치적 의식: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의식들. 전당대회, 의식적 형식성을 갖춘 각종 학생집회, 노조나 사회단체의 다양한 정치적 행사 등.
- ④ 축제행사: 특히 최근에 와서 다양해지는 각종 축제들, 예컨대 지역의 문화축제나 오락성·상업성 행사들을 포함.
- ⑤ 기타: 포상과 축하를 위한 의식들, 만남과 이별의 의식(이·취임식 등), 의지표명을 위한 행사 등 사회전반에서 일상화되어 가는 다양한 종류의 의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을 찍고’, ‘명함을 나누어줌으로써 인맥을 만들려 하는 것’은 자신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확보하려는 목적뿐만 아니라, 그 저변에는 개인화된 현대사회에서 끊임없이 소외되지 않고 어딘가에 의지하고자 하는 집단지향적인 개인의 경향과 연관이 깊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의식은 인맥을 중시하는 한국 특유의 사회성을 잘 부각시키는 장이라 할 수 있다(이영자, 1996).

경쟁과 이해타산으로 살벌한 사회에서 전인격적인 인간관계는 소멸해 가고, 그 결과로 대중사회의 물결 속에서 소외되고 고독한 삶을 누리게 된 도시인들은 이제 구성원들 사이에 더욱 친밀한 유대감을 느끼고 감정적 소통이 이루어지며 상부상조하는 전인격적 공동체를 꿈꾸게 되었다(신용하, 1987). 다시 말해 전통적인 집단에의 지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사회에서 다양한 음주유형이 갖는 성격은 이것과 연관지어 설명되어질 수 있다.

직장에서 친목도모와 화합을 위해 술자리를 마련한다. 아직 공동체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마치 그곳에 참석하지 않으면 소외될 것 같고, 결례라는 생각을 은연중 갖게 된다. 그래서 2차, 3차 계속해서 같이 남아 술을 마시는 것이 자신을 부각시키는 것이며, 또한 그것을 통해 자신이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게 된다. 돌림술을 함께 함으로써 자신이 그 집단의 구성원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 집단공동체의 연대의식이 강화되리라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대체로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의식이나 음주유형들은 학연·혈연·지연과 같은 사회적 연줄망을 근거로 하는 모임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사실 이러한 연줄망은 우리사회의 전통적인 가족주의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자신이 태어난 지역, 출신학교, 그리고 넓은 의미의 인척 등을 가족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다 아우르는 넓은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

향이 우리사회에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아래의 <表 2-1>은 평상시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를 주로 누구와 상의하는가를 묻는 설문결과이다. 이 조사결과를 보면 주로 상의 하는 대상으로 가족과 친인척을 포함한 혈연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고, 이어서 교연(성직자 및 교우), 학연(학교동창, 은사, 선후배), 지연, 직장(동료나 상사)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개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다양한 연줄에 의해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表 2-1> 個人問題의 相議 對象

응답항목	빈도(명)	백분율(%)
혈연	138	48.2
학연	30	10.5
지연	20	7.0
직장	5	1.7
교연(교회, 사찰등)	73	25.5
기타	16	5.5
무응답	4	1.4

資料: YMCA, “구리시민생활의식에 대한 설문조사”, 『전국YMCA 21세기 지역만들기 시민운동 보고서』, 2권, 1994.

이러한 유형의 관계는 음주양태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발견할 수 있다. 한 기업(S그룹)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를 보면⁷⁾, 직장인들의 상당부분이 대인관계 때문에 음주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8%가 대인관계상 음주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반면, 42%는 건강을 위해 절제해야 한다고 대답해 음주를 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려는 수단이

7) 문화일보 1995년 12월15일자 참조.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누구와 술자리를 함께 하느냐에 대해서는 직장 동료와 부하직원이 55%로 과반수이고, 회사밖 친구들 22%, 애인이나 배우자 10%, 거래처 사람들 8%, 혼자 5%의 순이었다. 이러한 조사방법에 대한 객관성과 타당성 문제를 일단 차치하고 보더라도 우리 사회의 직장인들에게 대인관계, 다시 말해 사회적 연줄망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조사에서의 응답범주를 확장시켜가다 보면 보다 더 근접한 대답이 나올 수 있으리라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른 기업(I기업)의 음주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⁸⁾ 술을 마시는 이유로 친목도모와 화합(46.4%)이 절대적이었고, 술상대로는 직장동료(47.6%), 회사 밖의 친구들(19.2%), 상사나 부하직원(15.2%) 순으로 응답했다. 이것 역시 음주라는 것을 통해 끊임없이 개인들이 어딘가에 귀속하려는 것을 설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자칫 현대사회의 각박한 현실, “비인격적 인간관계”는 무의미성과 공허감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은 각 개인들로 하여금 집단으로 돌아가려는 충동을 자극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직장인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⁹⁾ 서울대생 3백명(남 2백11명, 여 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조사에서 학생들은 술을 마시는 이유로 『사교를 위해서』라는 항목에 30% 이상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또래모임에 끼지 못하는 아이는 심각한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우리의 경우 점심식사를 하러 가더라도 혼자 가는 일은 거의 없다. 만일 혼자 가서 식사를 하면, 주변에서는 ‘다음부터 같이 가자’라든가, ‘그러면 안된다’는

8) 경향신문 1995년 9월 11일자 참조

9)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대학생 음주문화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술, 먹을 것인가, 먹힐 것인가』 심포지엄 자료, 1994.

식의 말을 건네는 때가 많다. 그 만큼 우리 사회에 여전히 함께 하는 ‘우리’의 개념이 강하게 남아있다는 증거이다.

물론 위의 사례들이 조사결과를 일반화시킬만한 연구는 아니지만 이 글에서의 논의를 진행시켜나가는 데 있어서 일부분의 예측을 가능하게 해준다. 다시 말해 현대사회의 개인들은 급격히 변화한 사회조건 속에서 자신의 이해관계와 더불어 전통공동체적인 집단으로의 지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음주의 유형이나 양태는 우리 사회의 전통적 공동체를 지향하려는 사람들의 태도나 경향과 관계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1. 소결: 中間集團 指向的 飲酒

결국 전통 공동체속에서 안주하던 문화는 비록 현대인들이 개인화 되어가더라도 그 어디엔가 소속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게 된다. 그 어떤 집단에라도 소속되어 자기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할 때가 많게 되는 것이다.

전통적인 공동체 사회일 때 개인은 대개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통해서만 자신의 존재가 규정될 수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다시 말해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자신이 속한 공동체만을 전부로 생각하는 것이 지배적이었던 것이며, 또한 아직도 이러한 문화가 옛 공동체를 대신하여 현대의 그 어떤 중간집단에서든지 선택하여 참석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게 남아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그런 중간집단은 다양한 의식들을 통하여 연대의식과 결속력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

물론 한국에서도 현대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전통적 의미의 공동체에는 상당한 정도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많은 부분 개인주의적인 성향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사회의

변동과정은 전통사회와 어느 정도 단절을 겪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형된 형태로 개인들의 의식구조 속에 여전히 남아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들은 개인과 이전 사회의 공동체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중간집단을 추구하는 경향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중간집단 지향적인 특징들은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연줄을 강조라는 형태로 드러난다.

술자리는 바로 위와 같은 맥락에서 중간집단을 지향하고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매개물로서 기능하는 측면이 있다. 마치 전통사회에서 다양한 의식들을 통해 공동체의 결속력을 다졌던 것처럼 모여서 술마시는 행위는 다양한 차원의 중간집단을 형성하여 현대사회에서의 소외감이나 고독감을 해결하고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도구적인 것이다.

이 체제지향적 음주와 개인의 집단지향적 음주유형으로서 본 사회적 결과는 그 대안과 정책에 연관시켜 보기 위하여 第3章 2節에서 현대사회에 잔존하는 음주행태를 각각 별도로 다루어 보았다.

第3節 現代 韓國人의 破片的 飲酒類型과 그 行態

순전히 개인적인 면으로서의 음주행위를 논할 때 먼저 이해해 두어야 할 것은 그 개인적인 음주요인의 다양성이 대단히 넓고 높을 것이라는 전제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에서는 다만 그 개인적인 음주의 변화무쌍한 제요인들을 몇 가지 형태로 분류해 볼 수밖에 없다. 다시말해 이 3절은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사례들을 다루는 대신 현대 개인들의 음주행위를 형태적으로 접근해 보는 것으로 마무리짓고 있음을 독자들은 양해하기 바란다. 사례 하나하나가 모두 커다란 논문제목에 들 수 있을 만큼 그 나름대로의 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래의 이런 이념형적인 분류를 임시적인 틀로 사용하

여 향후 깊이있는 연구들이 있기를 바란다.

따라서 개인적 음주의 형태적인 분류에 대하여 관심이 없으면 곧 4장으로 들어가 읽어도 이 글의 논리적 일치성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밝혀둔다.

개인과 공동체 또는 사회간의 관계는 다양한 유형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개인의 유의미한 행위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나 전체 사회 변화를 야기시키는가 하면, 각 개인들은 공동체와 전체 사회체계의 거대한 목표지향 속에서 사회적으로 통제되어지거나 끊임없이 사회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개별 행위자들의 다양한 요구나 행동방침 등이 공동의 규범에 의해 규제되거나 지도되어지지 못할 때, 실제의 개개인들이 자신의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서 공동체나 전체 사회와는 유리된 그런 상태를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은 전체 사회나 구성집단들에 있어서의 상대적인 무규범상태, 즉 아노미의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아노미적 상황이라는 것은 개인과 공동체 또는 사회간의 관계 유지에서 나타나는 규범적 규제정도에 따라 각기 상이한 유형으로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어느 일부분에만 한정하여 나타나기도 한다. 무규범적 사회가 개인이나 집단으로 하여금 음주하게 하는 요인은 현대 사회를 설명하는 특성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물론 그 요인이 결코 전부를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무규범적인 요인은 어디까지나 필요조건으로써 설명하기 위함이다. 이후 좀 더 구체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연구가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사회의 기본적 원리는 개인주의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은 자신이 만족하기를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러한 정당한 권리가 실현되기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개인주의적 정의의 원리는 현대 사회의 질서에서 필요불가결한 집단적 원리가 된 것이다(Aron, 1967).

현대사회에서는 전통사회에서처럼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감정, 신념, 가치관 등이 약화되거나 감축되어 사회적 해체와 같은 위험이 보다 강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무규범적 현상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런 현상이 높으면 높을수록 개인들은 한편으로 사회적인 매개체를 찾으려고 노력하게 된다.

대략 우리사회에서 나타나는 무규범적 상황을 두 가지 정도로 유형화하여, 그것들이 우리의 음주행태와 어떤 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무규범상태라는 것이 단순히 정신적 상태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라는 전체체계와의 연관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특성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개별 행위자들의 혼란상태라는 것은 -예컨대, 음주와 관련지어 생각해 보면 음주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관지을 수 있는 그런 상태- 결국 그것이 사회적 맥락에서 유추될 수 있는 성격이라는 사실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음주는 어느 사회에서나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선 전제해 볼 수 있겠다. 음주현상이라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다시 말하면 규칙적인 사회현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변동과 같은 급격한 변화상은 어떤 집단이나 사회 안에서 음주현상 그 자체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둔갑시킬 수도 있다. 예컨대, 위에서 지적한 공동체적 성격과는 다른 의미에서 개인의 행위를 규정짓던 규범적 규제력이 약해지고, 따라서 인간의 성향을 억제하거나 인도해 주지 못한다면 음주의 무규범적 상황 역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IMF 구제금융사태 하의 우리 사회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지금 우리사회는 심각한 사회경제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서구 자본주의의 엄격한 시장경제 원리는 단순히 경제적 구조조정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

해 한국사회의 고유한 문화적 차원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예컨대, 서구의 합리적 인간관계를 근간으로 하는 조정과정은 우리 사회가 일찍부터 소중히 여기던 공동체 문화적 특성과 상충되어 나타날 수 있다. 인간 개개인들이 무엇인가 상충되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사색하거나 책을 읽는 방법을 통하여 대처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술로서 해결하는 길을 찾게 될지 모른다. 조직공동체를 떠난다는 것보다 더한 슬픔이 어디 있으며, 그런 슬픔을 대처할 수 있는 미디어는 아직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동체를 지향하거나 이에 순응하는 다양한 형태의 음주양태가 서구의 개별문화적 특성과 상충되어 그 뿌리부터 위협받을 수도 있다. 이때 개별 행위자들에게는 심각한 무규범적 상황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 단순히 음주행위가 개인적 차원에서 기호식품 정도로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것은 우리 사회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행위유형과 윤리규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공동체적 음주행위 자체가 바람직한 음주문화의 전형을 이루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러한 위기 상황 하에서 아노미적 음주행위의 출현 가능성이 우리사회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는 것 뿐이다.

이러한 무규범적 음주행위유형은 특히 경제적 위기의 시기뿐만 아니라 사회적 변화의 폭이 급격한 극도의 변영의 시기에도 달라질 것이다. 물론 그 유형이 달라진다고 해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이 단순한 음주량(음주소비량)의 증감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사회변동의 과정에서 개별 음주행위의 패턴과 그에 대한 의식변화를 문화적인 면으로 규명해 보는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우리가 비록 개인적 차원의 무규범 상태로 부터 논의를 시작하면서도, 그 논의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특수한 공동체적 성격을 중심으로 이해해야 한다.

무규범적 상황을 대략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보았다. 하나는 대개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무규범 상태이다. 이것은 사회계층적으로 상층부에 속한 사람들이 갑작스런 사회변화로 인해 그 동안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사회에서 누려왔던 위치나 그에 따른 기대수준에 있어서 심각한 타격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경우이다.

반면에 다른 하나는 상향이동으로 나타나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이 경우는 첫 번째 경우와 대조적으로 사회 경제적인 수준이 극도의 번영을 누리는 호황기에 주로 발견된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음주의 양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에 대응하여 나타나는 인간관계와 그 과정 속에서 개인들이 어떻게 이해하는 지를 밝히는데 중점을 두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래의 이러한 2가지 접근방법은 실제의 경험적 현실 속에서는 구분되기 어려운 분석적인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둔다.

1. 社會的 危機狀況 I

경기후퇴에 따른 갑작스러운 하향이동이 나타나게 되면 그것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일종의 무규범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즉, 자신이 지금까지 속해 있던 집단이나 계층에 의해 지지되어 오던 도덕적 확신과 습관적인 기대 등이 상실되는 처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전통적인 공동체사회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개인에게 이러한 위기적 상황은 보다 심각하게 다가올 수 있다. 물론 이는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현대사회의 공동체적 성격을 지향하거나 이에 동조해 왔던 개인들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예컨대 한 조직에서 권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나,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담당하던 사람이 어느 특정한 위기 상황 하에

서 자신의 위치와 명예를 상실할 때 느끼는 박탈감은 더 크게 다가올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그 당사자에게는 스스로의 자괴감은 물론 타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소외감을 가져옴으로써 대인관계의 유형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이 때의 음주행위는 개인이 대집단 공동체와의 제반관계 맺음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자신과의 제반관계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성의 매개체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대인관계의 형태를 잘 드러내 주고 있는 음주유형에 있어서도 다양한 형태의 매개체로 진단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집단지향적인 태도의 강화를 들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위치의 하향변동은 개인으로 하여금 계속적인 집단애로의 편입 경향을 유지케 한다. 예를 들면 집단소속의 경향이 강했던 개인의 경우에는 대인관계 유지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거나, 다른 한편으로 집단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원한 관계에 있던 사람에게는 적극적인 태도 경향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음주양태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는 개인의 무규범적 상황으로 인해 자신이 소속한 집단이나 동류집단을 지향하려는 경향 하에서 공동체적 성격을 강화하려는 형태를 띠 수 있다. 이것은 무규범적이라는 것 자체가 개인을 공동의 규범으로부터 떼어놓음으로써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적극적인 태도를 지향함으로써 해결하려는 의지와 연관이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위에서 지적한 공동체적 음주양태라는 성격은 보다 강화된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 해체의 위기로서 나타난 개인의 무규범적 상황이 사회병리적 현상으로 표출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급격한 사회적 변화는 개인들로 하여금 무규율의 상태, 욕망과 만족간의 어긋난 상태로 빠져들게 한다. 사회적 조건이 이제는 관습이나 공통의 기

준에 의해 지배를 받지 않게 되어, 각 개인들은 끝없는 경쟁사회에서 혼란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자신들의 기대와 요구가 만족이라는 기대치와 심한 불균형 상태를 유지하게 될 경우, 개인들은 불안과 불만이라는 심리적 분위기를 표출하여 사회적인 병리상태를 조성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는 아직까지 계층이동으로 인한 음주행위의 변화를 보여주는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 단정을 내릴 수는 없다. 사회위기와 계층이동간의 극단적인 상황을 쉽게 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특히 서구사회처럼 공동체의 와해와 개인주의의 급격한 부상과 함께 개인의 무규범적 상황이 마약, 알콜중독, 자살과 같은 병리적 현상으로까지 나타나는 상황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아직 계층적 귀속의식이 덜 침체화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서양은 사회적 단위가 개인이며, 개인으로서 어느 계층에 속하는가 하는 의식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기본적 단위는 공동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개인으로서 어느 계층에 속하는가 하는 의식은 개인이 어느 공동체에 속하는가 하는 문제보다 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表 2-2>와 <表 2-3>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는 각 개인의 주관적 계층귀속의식과 사회적 이동의 가능성에 관하여 아직까지 예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뚜렷한 계층적 위계가 사회성원들에게 별로 각인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서구사회의 엄격한 개인적 상황보다는 오히려 유연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조직공동체로부터 분리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개의 개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공동체로 돌아가 안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층적 요소가 음주행위에 부정적인 혹은 긍정적 미디어로까지는 아직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해 진다.

<表 2-2> 主觀的 階層歸屬意識

(단위: %)

		1991			1994		
		상	중	하	상	중	하
지역별	전국	1.6	61.3	37.1	1.4	60.4	38.2
	시부	1.7	62.3	36.0	1.4	61.7	36.9
	군부	1.5	58.3	41.2	1.4	56.3	42.3
학력별	국졸 이하	0.9	46.3	52.8	0.7	41.1	58.2
	중졸	1.3	55.5	43.2	1.0	51.1	48.0
	고졸	1.3	65.8	32.9	0.9	65.0	34.1
	고졸 이상	4.1	83.1	12.8	3.5	83.4	13.0
연령별	15~19세	1.8	58.0	40.2	1.2	62.5	36.4
	20~29	1.1	61.4	37.4	0.9	64.6	34.5
	30~39	1.6	63.6	34.8	1.2	64.7	34.1
	40~49	1.9	65.4	32.7	1.6	62.7	35.7
	50~59	1.8	61.8	36.4	1.8	60.0	38.2
	60세 이상	1.5	46.4	52.1	1.5	42.2	56.4

資料: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4.

물론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무규범적 상황 속에서 실제 그것을 느끼고 있는 개인들의 음주형태는 변화할 수 있다. 예컨대 경제위기로 실직한 사람이 혼자 술을 마신다면, 그것은 개인적 무규범으로 인한 병리현상으로서 해석될 수는 있겠지만, 그 보다 더욱 중요한 요인은 공동체로부터의 단절에서 오는 음주형태가 아닐까 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음주형태는 단순히 심리적 요인에 의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기 보다는 공동체 또는 사회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현상의 측면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한국인의 음주행위는 <表 2-2>와 <表 2-3>에서 보는 것처럼 계층의 상하이동에서 기인되는 것 같지 않다. 보다 중요한 요인들은 공동체로 향하여 가는 과정 혹은 공동체로부터 멀리 떨어져가는 과정에서 많이 발견될 수 있는 것 같다.

〈表 2-3〉 社會的 移動 可能性에 대한 態度

(단위: %)

		1991			1994		
		가능성이 높다	보통	가능성이 낮다	가능성이 높다	보통	가능성이 낮다
세대 간	전국	60.7	31.7	7.6	60.3	34.6	5.1
	시부	59.1	32.5	8.4	60.0	34.5	5.5
	군부	65.3	29.3	5.4	61.4	34.7	3.9
	국졸이하	57.8	35.1	7.1	57.8	37.2	5.0
이 동	중졸	58.7	32.5	8.8	58.6	35.8	5.6
	고졸	61.3	30.9	7.8	61.3	33.6	5.2
	대졸이상	66.7	26.5	6.8	63.1	32.3	4.6
세대 내	전국	43.9	38.0	18.1	45.8	42.7	11.5
	시부	42.1	38.8	19.1	44.6	43.9	11.5
	군부	49.0	35.7	15.3	49.7	39.0	11.3
	국졸이하	41.8	39.0	19.2	43.2	42.9	13.9
이 동	중졸	40.0	40.7	19.3	41.0	46.4	12.6
	고졸	43.2	38.2	18.6	45.7	43.5	10.8
	대졸이상	53.5	32.7	13.8	53.3	37.8	9.0

資料: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4.

2. 社會的 危機狀況 II

위의 경우와는 달리 부의 획득에 의한 갑작스러운 상향이동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떤 식으로든지 기존의 생활양식을 형태 짓고 있던 틀이 붕괴되면 무규범 현상은 가능해 진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자신에게만 의존해야 한다는 믿음을 강요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무규범에 빠질 수도 있다.

특히 경제적 호황으로 인한 사회변동은 위와는 상황이 다른 무규

범적 상황을 연출하게 된다. 우리의 경우 산업화로 인해 급격하게 성장한 경제부분과 정신적 가치관의 혼란은 심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킨 바 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전통은 낡고 무용한 것으로 폐기 처분되었으며, 현대적 물질주의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물질의 풍요로움은 소비사회를 과장시켰으며, 이것은 오히려 ‘물신성’에 의해 개인들의 의식이 지배당하는 또 하나의 소외현상을 제공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물질적인 형태에 예속되는 사회현상이 심해질수록 개인들은 보다 덜 활동적이 되고 관망적인 태도를 취하게 됨으로써 의지의 결핍현상이 강화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하에서 이루어지는 음주행위는 그 자체로 개인을 고립시키게 하는 병리적 현상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물질적 풍요는 사회의 개별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소속감을 강화시키거나 또는 자신의 위치를 재확인시키려는 의례주의적인 현상을 보여준다. 예컨대 남과의 끊임없는 구별을 통한 ‘과시성 의례’의 형태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과시성은 남들에게 보이는 외양이나 겉치레에 치중하는 현상으로 나타나며, 경제적 호황기로 성장의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더 강조될 소지가 높다.

갑작스런 부의 획득으로 인해 합리적인 소비를 하지 못하는 경우, 자신의 변화된 위치를 어떤 형태로든 과시하기 위한 장소를 찾게 된다. 그러한 매개체로서 다양한 형태의 술좌석에 참석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시성 과소비는 물론 과음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새로운 자신의 위치에 적응하기 위해 모임이나 관계적인 의식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실제의 자신보다 훨씬 더 돋보이게 연출하려는 경향은 허례허식과 심한 경우 형식적 외양이 우선되어 원래 지니고 있던 선의의 술좌석의 의미를 상실해 버리는 의례주의적 현상을 낳기도 한다. 이처럼 경제적 풍요는 인간의 욕구를 자극함으로써 무규범

적 상태를 가져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오히려 경제적 빈곤은 그 자체로서 구속적인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무규범적 상황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Durkheim, 1951). 갑작스런 부의 획득으로 인한 상향이동은 공동체-개인이라는 범주, 그 어디에도 속하기 어려워지며 따라서 이기적으로 자신에게만 의존하면 된다는 그릇된 믿음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 음주를 통한 과시적 소비나 의례주의적인 신분확인 절차는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일종의 병리현상이라 할 수 있다.

第3章 現代飲酒行爲의 傳統的 性格

제2장에서 음주의 전통 공동체적인 요인을 설명하였다면 이제 제3장에서는 음주방법의 전통적 행태를 살펴보고 그런 행태가 현대에 어떻게 왜곡되었고 또 얼마나 남아 있는가를 추론해 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이 장에서는 전통사회의 음주행위를 통해 볼 수 있었던 공동체적인 성격이 현대사회의 음주행위와는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1절에서는 전통사회에서의 음주행위를 특징짓는 문화적 요인을 돌림술과 제사문화의 음복절차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나서 2절에서는 이러한 전통사회의 음주행위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특성이 현대사회의 개인들에게는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사회적 문제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第1節 傳統社會에서 본 共同體的 飲酒行爲文化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매개의 역할을 담당하는 음주행위가 술의 기원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의 문제는 여기서 다룰 성질의 것은 아니다. 술의 기원이 언제부터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음주의 사회적 의미를 이해하는데 그다지 중요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많은 고대 문헌들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음주에 관한 역사적인 증거는 당시 사회의 역사적 맥락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다.¹⁰⁾

10) 헤로도토스의 <역사>에는 고대 페르시아 사람들의 음주습속에 관한 대목이 있으며, 타키토우스의 <게르마니아>에도 게르만 민족의 음주에 관한 부분이 나와있다. 당시 사람들은 술자리를 통해 중요한 사안을 의논하고 결정을 내리는 등 음

전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음주행태가 강하였다. 문제는 전통적 음주행태의 요소가 아직 현대사회에 강하게 남아 있으면서 동시에 오늘의 음주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

1. 돌림술의 共同體的 性格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술잔을 돌려가며 공동체 구성원간의 중심일체를 다지는 음례(飲禮)가 있었으며 오늘날에도 이 관습이 아직 강하게 남아 있다. 상하 격의 없이 돌림술을 나눔으로써 서로간에 앙금을 풀어내고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수단으로 음주를 하였던 습관은 공동체 조직생활에 여전히 답습되고 있는 것이다. 상하가 술잔을 돌려가며 마시는 유배(流杯)습속이나 전쟁터에 출전(出戰)하는 장수에게 임금이 입을 댄 술잔을 들게 하는 의식 역시 그것의 한 형태이다. 이러한 돌림술은 농경생활문화의 특성과 어느 정도 연관을 맺는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집약적이고 영세적인 벼농사 중심의 농경경제를 이루어왔다. 따라서 씨족 중심의 집촌(集村)을 이루어 공동체적인 생활의 터전을 일구었다. 전통적 생활공동체의 최소단위로서 촌락은 사회경제적으로는 각각의 신분계층이 함께 살아가는 생활공간이었으며, 그들의 조직들은 전통적인 공동체적 생활방식(운영체계)을 가지고 존재해 왔다. 특히 전통적인 촌락들은 자연·생산·체제·의식을 포괄하는 공동체 단위로 오랫동안 유지 존속해왔다. 따라서 촌락은 다음의 몇 가지 특성으로 요약될 수 있었다.

- ① 지리적 환경 및 경제적인 조건을 공유하는 지연체(地緣體)이면서,
- ② 동질성과 특수성을 갖는 생활문화 공간이자,
- ③ 혈연과 신분적 구성체로서 여러 성격이 복잡하게 연결된 것이며,

주는 모임이나 의례과정의 매개수단으로서 지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조선일보 칼럼, 1996년 1월 6일자).

④ 그 속에서 공동체적 의식¹¹⁾과 경험적 세계관에 의존하여 삶의 방식 등을 형성, 전승할 수 있다.

특히 공동체 의식은 일터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공동노동과 공동취사 및 여가를 취하면서 경험적으로 터득하여 공감된 의식이 다수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임재해, 1986). 일체감 및 통일성, 그리고 여기에 자발적인 공동의 의지를 근거로 우리의 전통문화는 ‘더불어 일하고 마시는’ 공동체적 생활양식을 이루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촌락공동체의 특성은 내부적으로는 상부상조적인 유대와 결속의 장(場)이었으나, 다른 한편에서 이러한 특성들은 공동체 바깥의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제한적이고 배타적인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예컨대, 상호부조적 협동이라는 공동체의 행위양식이 안으로는 통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밖으로는 폐쇄적 기능을 지니게 되는 양면성을 띠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적인 통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외부적 요소의 도전과 반응에 대한 방어력과 저항력이 요구되었다. 이것을 위해서는 먼저 집단내부의 윤리규범과 가치기준에 대한 자기합리화 과정과 결속을 통한 응집력을 다져야만 했다. 바로 그 주요매개체의 하나가 술좌석이었다.

이 때 공동체의 고유한 민속문화는 이러한 양면성의 긴장관계를 해소시키고, 통합의 기능을 발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물론 민속문화의 역할이 공동체의 통합적 유대관계와 갈등해소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례의 강조와 잦은 모임을 통한 집단연대의 강화는 공동체를 움직이는 효율적 기제였다. 음주는 바로 그

11) 사실 엄격한 의미의 공동체 의식이란 사적인 이해관계에 앞서 공적인 이익과 질서를 위해 서로 돕고 사랑하는 관계를 뜻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 공동체 의식은 이러한 전형적 의미는 퇴색된 채, 혈연이나 연고를 중심으로 하는 “類似 가족적 공동체 의식”만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민문홍, 1996).

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매개체의 기능을 소화해 낼 수 있었다.¹²⁾ 그런 의미에서 돌림술은 공동체 내부의 연대감을 과시하고, 결속력을 굳건히 하려는 의도들과 관계깊은 것이었다.

2. 祭祀文化의 飲福節次와 共同體의 性格

우리나라에서는 돌림술의 다른 뿌리로서 제사문화에서 신명(神命)과 접하는 수단으로 제주(祭酒)를 돌려 공음(共飲)하는 음복(飲福)절차가 있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고대사회의 제천행사에도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삼국시대를 보면 각 나라마다 제천의식이 독특한 형태로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삼국은 하나같이 가무음주(歌舞飲酒)하며 제사를 올렸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것은 삼국시대에 접어들면서 문화 전반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특히 벼농사의 정착은 농경경제에 따른 어느 정도의 식생활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었다. 이러한 벼농사의 발달은 또한 술의 발달을 동반시킬 수 있었다. 술을 주로 쌀로 빚는 것이 특색이었던 만큼 쌀생산의 발달과 술의 발달은 상호 동반되어 나타나는 관계였던 것이다.¹³⁾ 이를 통해 술은 우리 일상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한국의 전통사회가 농업중심 사회였고, 사회적 이동과 지리적 이동이 제한된 국지적 형태의 공동체가 삶의 터전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해 보면, 술의 기원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누는 음주양태의 전통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12) 두레 조직원의 신입례로서 선배들에 대하여 술과 음식 등을 대접한 내역을 기록한 문서인 진세책은 이를 잘 보여준다. 신입례로 대접하는 것을 여기서는 '진세책'을 낸다고 하였으며, 이것은 새로 들어온 조직원의 명단과 신입금, 치부책이 함께 전해져 촌락의 노동조직을 밝히는 귀중한 자료이다.

13) 동월의 '조선부'에는 "조선에서는 술을 빚는 데 멍쌀로 하고 찹쌀을 쓰지 않는다."라고 써여 있으며 '오학편'에도 "조선에서는 멍쌀로 술을 빚는다."라고 문헌에 나와 있다(주류문화, 1988).

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삼국시대 중앙집권화된 국가체제 정비 이후 유교를 중요한 사상으로 받아들였다. 특히 조선시대 유교윤리의 지배적 역할, 다시말해 현실 생활 속의 제반 규범이나 질서, 예절이 삶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물론 오늘날 현실시점에서 볼 때 유교가 독립된 자기 모습의 종교현상을 확보하면서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일상생활의 무의식적인 부분에서 또는 관습상의 상례(喪禮)나 제례(祭禮) 등의 의례(儀禮)행사로서 잔존해 오는 현상으로만 겨우 찾아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러한 삶의 방식은 오늘의 가족윤리, 인간관계, 질서와 도덕윤리 등에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대생활의 많은 부분이 그대로 유교의 가르침 속에 그 뿌리를 박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음주예절의 경우를 보아도 알 수 있다.

향음주례(鄉飲酒禮)¹⁴⁾는 전통사회에서 음주에 대한 예절방식을 여러 조건으로 범주화하여 제시한 의례 절차였다. 공동체사회에서 이러한 의례절차는 내부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전통적 권위질서를 유지하는 윤리규범으로 적용되었다. 조선 세종시기에 신진사림이 각 서원사찰에서 향음주례를 익히고 사람 사는 곳 어디에서도 그 예법을 중시하였다는 기록이 있다(주류문화, 1988참고). 비록 기녀(妓女)라고 하여도 단정한 풍속을 따르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해 주는 사례이다. 어쨌든 당시 사회에서 공동체를 운영하는 행동양식이나 규범의 차원에서 유교윤리는 지배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의례의 관습을 보면 당시 공동체사회에서 음주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

14) 향음주례는 주인이 손님을 초대하여 술을 대접하는 절차를 말한다. 크게 나누어 손님에 맞이함, 주인이 어른 손님에게 술을 권함, 어른 손님이 주인에게 술을 권함, 주인이 큰 손님에게 술을 권함, 큰 손님이 주인에게 술을 권함, 연회를 함, 손님이 돌아감의 순서로 주례(酒禮)의 절차가 진행된다.

다. 먼저, 관례(冠禮)¹⁵⁾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관례절차에는 거기에 참여한 손님이 맑은 술을 한 잔 주면서 성인이 됨을 축복하고, 술을 마시게 하는 관습이 있었다. 결국 그것을 통해 술을 마실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여 주는 의례였던 것이다. 여기에서 술은 성인만의 음식임을 보여주고 성인은 모름지기 지각(知覺)을 통해 스스로 이치를 깨달아야 함을 가르쳐 주었다. 이처럼 술을 대접받았다는 사실은 곧 인격적 존경의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기도 하였다. 결국 이것은 공동체에서 허락한 행위규범의 적용과 그 의미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었다.

둘째, 혼례(婚禮)의 경우를 들 수 있겠다. 물론 세계 어느 혼례에도 음주행위가 없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혼례때 모인 인간관계를 중시하면서도 동시에 먹는 것을 중시하는 다른 특성이 나타난다. 한국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전자와 후자가 병행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 맥락에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먹는 것과 인간관계를 중시한다는 뜻은 혼례식이 갖는 숭고한 인간 그 자체의 결합도 중요하지만, 그 식이 일종의 공동체적인 연회장으로서 의미를 다하기 위하여 매개체로 사용되는 음주행위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그렇게 병행되던 2가지 요인들을 중용적으로 다루기 보다는 그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때가 많은 것이 문제이다. 특히 자본주의가 강해 질수록 인간중심 보다는 먹고 마시는 것 중심으로 흐를 때가 더 많게 되어 가는 것 같다.

혼례는 성인의 남녀가 결합하여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의식의 예절 절차이다. 예절로 부부의 의리를 맺는 것은 특히 전통적인 공동체사

15) 관례는 일종의 성인의식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한 때인 남자 20세, 여자 15세가 되면 관례를 거행하여 성인의 의관을 갖추어 입혀 주었다. 또한 자(字)를 지어 어른으로 높이면서 성인의 책임과 의무를 지워주기도 하였다.

회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었다. 전통적인 공동체사회에서는 유교적 규범체계가 모든 대인관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규범과 마을의 공동체규범이 뚜렷하게 분화되지 않았다는 특성이 있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되는 혼례의 과정은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와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 오늘날에도 일가친척은 물론 이웃에 혼례가 있으면 상호부조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적 유산이 남아있다. 여기서 음주는 그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강력한 매개의 수단으로 일조한다. 전통혼례를 보면 예식의 과정 중에 집례(執禮)가 신혼부부에게 술을 주면서 앞날의 행복을 빌고 격려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러한 예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다.

셋째, 상례(喪禮)를 들 수 있다. 전통 상례는 “가례(朱子家禮)”에 기초한 유교예속이다. 관·혼·제례가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의례인데 반해 상례는 여러 단계의 의식이 연결되어 진행되는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러한 예법은 조선 중기만 하더라도 일부 지배계층에만 시행되었으나 조선 후기에 이르면 서민사회에도 뿌리를 내리게 된다. 이것은 유교적 교화가 모든 신분계층에게까지 이루어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공동체사회의 중요한 윤리규범은 의례를 통해 형성된 유교적 가치규범과 연관지워질 수 있는 것이었다. 여기서도 음주의 예도를 볼 수 있다. 상례(장례)에서는 영위(靈位)에 아침 저녁으로 술을 올려 영혼이 메마르지 않게 한다. 또한 문상객도 술을 올리며 명복을 비는데 다른 예와는 달리 상례에서는 술이 주음식으로 사용되었다는 특징이 있었다.

넷째, 제례(祭禮)를 들 수 있다. 특히 제례의 절차에서 술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제사의 본 과정에서 신을 모셔오는 청신(請神)의 절차가 있는데, 여기서 강신주(降神酒)를 뿌려 신을 부름으로써 제사의 첫머리를 시작한다. 신에게 술잔을 올리고(獻酌), 그 응답으로 복

을 받으면(降福), 사람들은 신이 강복해 주신 제물 가운데 술과 고기를 제주(祭主)가 나가서 받아먹는 음복(飲福)의 절차가 있다. 제례는 반드시 석 잔의 술로 의식을 거행하여야 하며 술이 없으면 제사를 지낼 수 없을만큼 술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향후 음주에 대한 정책의 하나를 이 맥락에서 미리 제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이런 음주의 미풍양속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조각하여 그것을 교육·보급시키는 방법이다. 실제 어려서부터 음주훈련과정을 거친 사람은 생을 통하여 술좌석을 함부로 할 수 없으며 그 술좌석을 하나의 훈련의 장으로 여기게 될 수 있다.

3. 소결: 共同體 生活의 媒介手段으로서 飲酒

돌림술이나 제사문화의 음복절차들의 전통은 현대에 이르러서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그런 전통들은 오늘날에도 일부 계속 남아 풍미되고 있다.

오늘날 유교의 향음주례, 상례, 제례, 혼례, 관례 등 그 본래의 원형은 파손되었지만 아직도 우리의 생활양식의 근간이 되는 풍속으로 남아있다. 그것은 아직도 공동체적 유산이 잠재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위에서 지적한 전통사회의 의례절차들은 어찌보면 개인적인 통과의례 정도로 치부해 버릴 수 있다. 그러나 대개는 그러한 통과의례들을 공동체 전체의 잔치형식으로 축제를 벌임으로써, 모두가 참여하여 함께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여기서 비롯되는 심리적 일체감은 공동체로서의 결속감을 강화시켜주며, 부조의 교환이나 분배과정에서는 자조성과 협동성이 조성될 수 있었다. 또한 공동행사를 거행함으로써 개인의 부담을 덜어주게 되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은 한층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공동체에서 의례의 효과라는 것은 통제나 단속을 위한 질서규범의 역할뿐만 아니라 결속과 연대를

통한 자기합리화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음주는 이러한 의례의 절차에서 없어서는 안될 매개수단이었다. 술을 권하는 것은 공동체의 일원임을 인정하고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었고, 공동생활에서 오는 긴장을 풀어주는 주술적 의미도 포함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음주는 공동체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행위양태나 의식의 특성을 살펴보면 좋은 매개수단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은 다시말해서 음주양태라는 것을 통해 공동체문화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第2節 現代社會에 殘存하는 飲酒行態

적당하고 건전한 음주는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독특한 음주문화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더구나 음주량의 증가추세가 좀처럼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청소년의 음주율이 증가하고 있는 맥락에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노인철, 1997). 단순히 음주 소비량의 확산이라는 것을 넘어서 소위 폭탄주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독특하게 정착되어 있는 한국사회의 음주문화라는 비정상적인 음주행태로 연결되며, 그러한 음주행태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¹⁶⁾ 여기서는 이러한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사회문제를 드러내기 위해 앞서 제시했던 분석적인 범주를 다시 사용하고자 한다. 즉, 권위지향적인 음주

16) 조성기는 『우리 나라 음주문화 실태와 알코올 문제 해결방안』이라는 논문에서 18세 이상의 남녀 1,685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우리 사회의 주된 음주습관이 다음과 같이 유형화되어 나타났다. “절대문화 만연, 술잔을 돌리는 것을 즐김, 음주기회가 많음, 2차·3차로 술을 마심, 자주 마심” 등이 그것이었다.

행태에서 발생하는 문제, 의례지향적인 음주행태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간집단 지향적인 유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나누어 그 문제들로부터 파생되는 사회적 결과와 기타 예외적인 문제들을 살펴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결과에 맞추어 대안적인 정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權威主義의 結果로 나타난 盲目的 飲酒行爲

권위지향적인 음주행태는 사회의 각 영역에서 쉽게 발견된다.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사회적 권위를 내세우는 신분질서와 가족에서의 부모-자녀 관계를 확장한 상하관계는 사회전반에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학교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행위유형들을 살펴볼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대학 새학기 때마다 어김없이 이루어지는 ‘신입생 환영회’ 행사는 이러한 권위지향적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집단공동체 그 자체를 권위로 떠 받치면서 하는 음주행태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자리에서 선배의 권위로 권하는 술은 거부할 수 없고 무조건 마셔야 한다는 관념이 강요된다. 특히 아직 자기가 몸담을 조직이나 대학의 성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신입생들을 환영하는 자리에서 학년초에 선후배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매개체로 술좌석이 이용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냉면사발에 소주를 가득 담아 후배에게 ‘원샷’을 할 것을 강요하고 후배는 그것을 권위에 억눌려 받아먹고 그 결과 소위 ‘필름이 끊어지는’ 상황까지 벌어진다. 이런 행위는 권위지향적인 공동체 문화 속에서는 그다지 이상할 것이 없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행동들이 공동체 나름의 친목도모와 단합이라는 측면으로 수용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음주행태는 거의 의심할 여지없이 대학사회를 위시한 젊은이들이 모이는 조직사회 전반

에 확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신입생 환영회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하였던 선배의 술 강요로 인한 맹목적인 과음으로 목숨을 잃은 것을 기억한다면¹⁷⁾ 이러한 권위지향적인 음주행태의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서양 대학 입학식의 술좌석은 개인역량의 인정으로서 받아들이는 의미가 있다면 한국 대학의 입학식의 술좌석은 대개 개인의 소속감을 가지게 하는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음주행태가 야기하는 문제는 서로 관계를 맺는 방식을 고착화시킨다는 것이다. 음주는 대학사회에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매개물이므로, 이런 유형의 술자리는 계속된다. 학년초 신입생 환영회와 같은 행사 이후에 선후배가 맺는 관계의 방식은 신입생 및 후배들에게 각인되어 이러한 음주행태가 지속되게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관계를 맺는 방식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공동체 문화로부터 소외될 가능성도 많다. 사실 이러한 권위로 부각되는 집단 그 자체가 권위지향적인 관계 속에서 후배가 선배를 진심으로 존경할 수 있는 내적인 것들은 중시되지 않는다. 관계의 형식만이, 다시 말하여 맹목적인 형식만이 크게 부각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권위지향적인 음주행태 속에서 이러한 문화에 적응하고자 하는 많은 학생들은 선배의 술 권유를 거절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게 되고 이러한 태도를 자신의 후배들에게 전수하게 되는 것이다. 이 안에서 선후배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갖가지 형태의 음주방법들이 제시되고 이것은 폭주나 비정상적인 음주행태로 연결되기가 쉬운 것이다.

‘선배가 주는 술은 받아 마신다’는 관념은 비단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직장 및 일반사회에서 맺는 대인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최

17) 올해 초에도 한 학생이 신입생 환영회의 술자리에서 목숨을 잃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는 처음으로 형사처벌을 시행하였다.

근 들어 회사의 신입사원 면접을 술자리를 매개로 하여 실시하는 회사들도 적지 않았을 만큼 음주는 회사에서도 서로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매개물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이야기하였지만 직장상사들과 함께 하는 술자리는 역시 권위를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직장의 상사들은 술자리를 주선하거나 술을 권하는 등의 형태로 자신의 권위와 신분을 확인하려 하고, 사원들은 이러한 상사들과 좋은 친분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¹⁸⁾ 권하는 술을 거부하지 않고 어떠한 형태로든 술자리를 함께 하는 것이다.¹⁹⁾ 즉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이 권위 지향적인 경향이 하향과 상향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특히 후자의 측면은 학교에서보다 직장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문화적인 맥락에서 직장상사와 맺는 친분관계는 직장생활의 성공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직장인들은 술을 마실 기회가 늘어난다.²⁰⁾ 이러한 사회적 친분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술자리 자체가 하나의 강제로, 다시 말해서 맹목적인 강제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²¹⁾ 문제는 이러한 권위 지향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중요한 매개물이 술이라는 것은 쉽사리 바뀌지 않으며 사회적 강요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술자리에 참석하게 되는 경우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는

18) 1987년도 한국갤럽이 남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국 직장인의 생활과 의식』을 조사한 결과 직장인들은 출세의 요건으로 ‘높은 사람과의 친분관계’(43.5%)를 가장 많이 꼽았다.

19) 물론 직장의 인간관계에서 술을 마시는 이유가 비단 권위 지향적인 차원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후에 설명하겠지만 상하관계가 아닌 차원에서 인간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밝혀둔다.

20) '92년도 흥국생명보험사가 서울 지역의 1백 70개 회사 직장인 9백 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주일에 1회 이상 음주한다고 대답한 직장인들이 무려 83.2%에 달하였고, 3회 이상 음주하는 비율도 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 조성기(1997)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음주이유에 대한 조사에서 상대방의 강요에 의해 2차 이상의 술자리를 하는 경우도 무려 16%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것이다. 즉, 개개인들에게는 ‘술 권하는 사회’ 인 것이다.

청소년의 경우에 있어서도²²⁾ 권위지향적인 성향과 거리가 멀 것 같지만 어른들과 동일하게 맹목적인 음주행태가 발견된다. 공식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고등학교 심지어 중학교의 경우에도 각종 서클이나 회합의 자리에서 술이 매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견된다. 더구나 이렇다 할 여가활동의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같은 술자리는 음성적으로 확산되기가 쉽다. 한편 그들의 술자리에서도 선후배 간의 권위적인 상하관계를 확인하는 ‘신고식’ 같은 것들이 존재함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권위지향적인 패턴들이 청소년들의 술자리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볼 수 있었던 음주행태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학습되어 그들에게로 흘러들어온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사실 이러한 음주행태는 가장 가깝게 자신의 가정에서 부모들의 평소 음주습관을 통해서도 엿볼 수가 있다. 음주에 있어서 청소년들에게 가장 의미있는 타인이란 자주 상호작용을 하고 중요한 영향을 주는 부모나 또는 가까운 어른일 가능성이 높다. 즉 청소년들의 또래집단 사이의 음주행위에서도 위와 같은 권위지향적이며 자연적인 그리고 맹목적인 음주양태가 답습될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²³⁾

22) 최근 청소년의 음주량 증가에 대해서는 통계청에서 발간된 『한국의 사회지표』 (1996), 문화체육부 조사(1996)를 참조.

23) 사회학습이론에서는 부모의 약물사용이 자녀의 약물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모델링 식 강화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음주하는 모델과 접한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음주를 하게 된다. 대부분의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에 의해 처음 술에 노출되며, 청소년들은 부모의 술에 대한 규범과 태도를 직접적으로 내면화함으로써 음주행위를 하게 된다고 하였다. 물론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인지적인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다(권지현, 1997).

2. 儀禮主義의 結果로 나타난 形式的 飲酒行爲

사실 의례지향적인 음주행태라는 측면은 권위지향적인 것과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다. 다만 분석적인 필요에 의해서 이와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제시되었듯이 주도(酒道)를 익힘으로써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덕스러운 일임을 인지하는 것이 전통사회에서의 특징이었다. 물론 이와 같은 의례적이며 형식적인 음주행태의 전통이 형태를 달리하여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은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례지향적인 음주행태를 가장 분명하게 엿볼 수 있는 대상은 기업에서의 영업방식이나 직장에서의 회식자리 등에서 나타나는 관행을 통해 알 수 있다. 즉, 술자리를 통해서 자신들의 신분이나 위치, 그리고 권위가 확인될 수 있다는 생각 아래 다양한 형태의 의례적인 절차가 발달하게 된다. 즉 ‘사업상 어쩔 수 없이’ 또는 ‘대접하기 위하여’ 라는 형식적 명목으로 대접문화가 관행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술자리를 매개로 한 대접문화는 사실 불필요한 사회적 손실을 야기하게 되며 각종 청탁 등이 이러한 술문화 속에서 암묵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것은 불필요한 재정경비를 지출하여 과소비의 문제를 낳거나 부정비리 등 사회적 문제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대학가에서도 술을 매개로 하여 선후배가 갖는 각종 행사들에 있어서 그 모임의 본래 목적보다 술 마시는 행위 자체가 형식적으로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어 본래의 목적은 감춰지게 되는 많은 사례를 엿볼 수 있다. 술자리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한 집단의 일원임을 확인해주는 표식이라는 의식은 아직도 우리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으며, 대학사회 역시 마찬가지이다. 대학 신입생들이 입학 후에 낯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동급생들과 친목을 다지기 위한 매개의 장

으로 술자리를 선호하고 있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자리에서는 단순히 술을 마시며, 안면을 익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집단의 선배들로부터 자신들 나름대로의 음주방식이나 토론방식 등을 습득하게 된다. 따라서 학생들은 익명의 개인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위치지워지며 이를 통해 집단내 규범과 질서에 적응해 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음주양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첫째, 개인의 몰가치화를 들 수 있다. 개인은 그것이 전통적 의미에서의 공동체(We)이든 중간집단(we)이든간에 그것이 제시한 행동규범(예컨대, 술자리에 참석해야만 하는 이유라든가 주법 등)이나 장요(술권유) 속에서는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실현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둘째, 공동체나 모임 등의 실질적인 의미가 상실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음주의 형태가 ‘음주를 통한 모임’ 또는 ‘모임을 위한 음주’인 경우, 그것이 만일 형식적이고 과시적인 의례주의의 절차에 매몰되면 마치 ‘음주를 위한 모임’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는 것이다.

셋째, 음주의 과시성 소비행태로 무분별한 과소비를 조장하거나, 술자리라는 음주모임의 장(場) 자체가 부정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예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 형식화되고 의례적인 것에 머문다면 그 본래의 의미는 상실하게 되어 허례허식과 같은 과시적 소비로만 그칠 뿐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해와 관련하여 남에게 대접하고자 마련하는 술자리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하게 되어 사회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3. 中間集團 指向의 結果로 나타난 常習的 飲酒行爲

이미 앞에서 우리는 현대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중간집단 지향성

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직장의 경우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대인관계 때문에 음주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 속에서 직장인들은 잦은 술자리를 상습적으로 갖게 된다.²⁴⁾ 사실 술자리는 원하지 않든 사회생활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술 그 자체가 사람들간의 모임을 매개하는 주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적인 모임을 통해서 사람들은 의견을 교환하고 비공식적인 격의없는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중간집단 지향성이라는 측면의 주된 매개물이 음주라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 서로간에 더욱 ‘돈독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2차, 3차까지 술자리가 이어지는 경우가 이미 상습화되어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다.²⁵⁾ 특히 남성들에게 있어서 술실력이 사회적 실력의 일부로서 인정되고, 음주가 호탕함과 남자다움의 척도로 인식되기가 쉽다는 측면²⁶⁾은 술자리라는 중간집단의 성격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관계를 맺기 위하여 술자리를 상습적으로 빈번히 갖는 것에 대하여 정신과 전문의들은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즉, “사람을 사귀기 위해 또는 더욱 끈끈한 사이가 되기 위해 차수를 더해 가면서 술을 마시게 될 때 술 마시는 것을 계속해서 합리화하게 되고, 이것이 상습적으로 반복되면 직장생활에서나 친구 사이에서나 술 없이는 도저히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다.²⁷⁾

24) 1988년 월간 『식품과 위생』誌가 20~50대 직장인 9백 5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술을 마시는 이유로 ‘거래처나 동료끼리 좀더 가까워지기 위해’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31.7%로 가장 많았다.

25) 월간 주류문화가 '88년 서울지역의 1천 2백 18명의 음주자(남자 941명, 여자 2백 77명)를 대상으로 음주성향을 조사한 결과 술자리를 ‘2차 이상 간다’는 사람이 사람이 61.5%에 이르지만 그 이유는 26.2%가 ‘별 생각없이 습관적으로 마시러 간다’고 응답했다.

26) 동아일보 95년 8월 26일자 사설

이는 결국 다음과 같은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개인화된 사회에서 중간집단을 지향하려는 사람들의 의도가 음주라는 매개를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공동체의 와해로 인해 소외감과 사회적 정체성에 의문을 갖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개인들은 새로운 집단이나 모임을 구성하고 참여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시도한다. 그런데 음주라는 매개가 상습적으로 강조됨으로써, 그 안에서 또 다른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집단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들에게 정신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집단의 자발적 성격을 저해하여 공동체주의로의 매몰을 야기시킬 수 있다.

둘째, 사회적인 연출관계를 강화시키는 상습적인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의도적인 집단의 구성이나 참여가 사회적 관계의 확장을 의도한 경우 이러한 문제는 더욱 크게 나타나게 된다. 예컨대 어떠한 연출을 매개로 형성된 집단의 경우, 막걸리로 ‘원 샷’을 시도하는 독특한 ‘사발식’을 갖는데 이는 음주의 형태를 규정짓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집단의 연대감과 동료의식, 다시 말해 연출망을 각인시키는 기능을 하게 된다. 이러한 연출망식 관계의 사회적인 확장은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도 뿌리깊게 남아있는 개별주의적(particularistic) 연고의식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공동체 안에서의 인간관계를 타산적이고 비인격적인 측면으로만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중간집단의 성격이나 그것을 구성하려는 사람들의 의도 자체가 특수한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대인관계를 물화시킬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음주의 매개적 기능은 보다 더 강조될 가능성이 많다.

27) 한국인과 술에 관한 48가지 리포트, SBS 보도국 기자들 위음, 서지원

第3節 傳統的 飲酒行爲의 社會的 結果와 그 解析

이상에서 살펴본 음주유형에 따른 문제점들은 우리사회의 문화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미 지적한 문화적 문제들을 토대로 하여 이것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개인에게 미칠 수 있는 병리적 측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육체적 건강의 문제이다.

비정상적인 또는 과도한 음주습관이 육체적 건강에 미치는 피해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신체의 거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만성과음자의 대다수가 알코올성 간질환, 알코올성 간경화, 알코올성 지방간, 알코올성 심근증, 알코올성 위염 등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다(노인철 외, 1997).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알코올 중독인 사람의 구강암 발생률은 일반 정상인의 20~3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강암 환자 중에서 50.1%가 한달 중 21~30회의 술을 마셨고, 82.2%가 1회 평균 음주량이 소주 한병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김명진, 1996; 재인용). 또한 췌장암 발생의 경우도 1985년 이후 원인요소 중 알코올이 원인인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알코올은 각종 질병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과도한 음주를 유도하는 사회적인 압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둘째, 정신적 건강의 문제이다.

정신적 건강의 문제는 주로 알코올 중독의 문제와 연관된다. 알코올 중독 증세는 보통 우울증이나 치매의 증상과 연관되며,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고립이라는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한국사회에서 알코

을 중독의 문제는 예외적인 현상으로 간주될 수 없을 정도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95년도에 이화여대 엄예선 교수팀이 전국 18개 병원에서 알코올 중독환자 136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알코올 중독자의 80.6%가 30~40대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96년도 15~69세의 6천 480여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20세 이상 남자만 따져 보았을 때 20.5%가 알코올 중독자인 것으로 밝혀져 중년 이상의 연령대 보다 점차로 20대의 알코올 중독이 문제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립서울정신병원 발표에 따르면, 20대 알코올 중독자의 비율이 '86년 병원 문을 연 이래 계속 증가추세를 보여 '96년 현재 13.7%에 이른다. 유추해 보건대 20대 알코올 중독자의 증가추세는 청소년들의 음주 증가추세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것은 일탈적인 욕구가 한국사회에 뿌리내려 있는 독특한 공동체적 음주문화와 결부되는 데에 그 사회적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알코올 중독의 문제는 갖은 반사회적 행동, 비행, 정신장애 및 정신분열증의 원인과 연결되는 문제로서 그 파장효과가 큰 범위를 차지한다. 특히 지나칠 수 없는 문제는 술로 인해 많은 가정에서 불화가 야기된다는 것이다. 즉 지나친 음주의 습관이 주로 남성의 공격적인 습성과 연관되어 가정 내에서 아내구타의 사례가 종종 발견된다. 이러한 정신적 건강의 문제는 앞서 이야기한 가족관계 및 인간관계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다.

셋째, 음주로 인한 일탈행위와 사고를 들 수 있다.

우선 음주와 관련된 폭력 및 범죄의 문제를 언급하고자 한다. 지난 '95년 3월 한 달 동안 동아일보 취재팀이 서울 시내 30개 경찰서에 접수된 폭행사건 4천 67건을 당직사건 기록부를 통해 조사한 결과 음주로 인한 폭행사건 전체 폭행사건의 55.3%를 차지했다(동아일보

'95년 4월 4일자). 또한 강도사건에 있어서도 음주로 인해 통제력을 잃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비율이 20%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형사정책 연구원, 1991).

다음은 술에 취해 통제력을 잃은 사람에 의해 저질러진 범행사례를 기술한 것이다.

“1996년 8월 사건 현장에서 만난 한 30대 직장인 역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술 탓만 하는 여느 술꾼과 다를 게 없었다. 서울 성수동 모 섬유회사에 다니던 박모(31)씨는 퇴근 길에 회사 구내식당에서 동료들과 술잔을 기울일 때만 해도 평소와 다름없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밤 10시쯤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얼큰하게 취한 박씨는 술자리가 파하자 성수 지하철역 앞길에서 길을 가던 여대생을 발견하고 갑자기 치한으로 돌변하고 만다. 여대생은 갑자기 당한 일에 소스라치게 놀라 비명을 질렀고, 박씨는 주머니에 있던 흉기로 반항하는 여대생의 목과 팔을 찌르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게다가 이 장면을 목격하고 제지하던 또 다른 피해자 최모씨를 살인하고 말았다. 그러나 추행과 살인이라는 엄청난 범죄 혐의로 경찰서에 끌려온 박씨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태연하게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경찰관들에게 반문하고 있었다. 박씨는 소주 한병 때문에 이성을 잃고 결국에는 흉악범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²⁸⁾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폭행사건과 음주습관의 연관관계는 우리 사회에서 부인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된다. 더욱이 음주 이후의 행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용이라는 맥락은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다. 음주행위를 공동체적인 경험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웬만한 비정상적인 행위는 공동체 내에서 대부분 쉽게 용납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28) 한국인과 술에 관한 48가지 리포트, SBS 보도국 기자들 위음.

음주운전이라는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실제 음주운전은 하락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97년도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여성음주운전 적발사태가 크게 늘어난 것을 포함하여, '97년 1월에서 8월까지의 기간에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다른 해 같은 기간보다 29.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맥락을 이해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또한 음주가 산업재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보고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86~88년 2년 동안 조선소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매일 음주자 비율이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35.3%, 재해를 입지 않은 근로자는 21.6%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이명선, 노재훈, 문명한, 1989).

음주가 근로자의 결근일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도 있다. 우리나라의 중소제조업 근로자 6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음주횟수가 증가할수록 결근자 비율이 높고 결근일수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김은화 외, 1994).

第 4 章 結論 및 政策提案

第1節 飲酒를 文化的 媒介體로 본 소결

지금까지 한국사회의 음주문제를 독특한 공동체 문화의 매개체라는 맥락에서 논의해 보았다. 공동체-개인이라는 범주를 분석적 도구로 삼아 다양한 인간관계의 유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사회에 독특하게 나타나는 음주양태의 성격을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현대사회에서의 이러한 음주행위에 대한 분석을 위해 이 글에서는 현대사회와 전통사회라는 대비를 통해 각 사회의 지배적인 사회구조를 주된 분석의 틀로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현대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음주 행위가 상당히 타인 지향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음주행위가 술 자체를 즐기거나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음주행위보다는 다른 사람과의 유대를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술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타인과의 관계를 지향하게 하는 매개체(media)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음주행위의 유형을 두 가지 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개인의 음주행위와 집단지향적 음주행위가 바로 그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현대사회의 개인 또는 “나(I)”를 중심으로 한다. 이는 개인 대 개인의 관계가 보다 합리적이며 비인격적인 현대적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음주가 그 자체로 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경우이다. 반면 우리 논의의 주된 관심사라 할 수 있는 후자의 경우, 이것은 전통사회의 집단 또는 “우리(We)”를 중심으로 하여 개인중심과 집단중심 사회라는 이론적 틀로 다시 나누어 볼 수 있

었다. 개인중심은 비교적 자발적 집단의 지향성을 띠고 있는 반면 집단중심은 개인이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을 보인다. 물론 이러한 작업은 이미 사회실체를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도구에 지나지 않음은 주지한 바이다.

연구결과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전통적인 집단을 중시하는 “우리” 문화와 현대적인 개인의 “나”를 중시하는 문화가 공존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것은 두 개의 문화가 평행적으로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두 유형이 결합한 새로운 집단을 중심으로 문화가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우리는 ‘중간집단의 문화’라 정의하였다.

이처럼 한국사회에서 독특하게 나타나는 음주행위 유형은 산업화, 도시화라는 커다란 사회변화 내에서도 변형된 형태의 공동체 문화, 즉 집단지향적인 문화라는 맥락 속에서 적절하게 파악될 수 있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유형화할 수 있는데, 하나는 체제지향적 음주유형이다. 이것은 다시 권위주의적 형태와 의례주의적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권위주의적 형태는 음주행위 그 자체도 사회적 의미의 예법을 중시하여, 선후·상하개념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이다. 특히 직장이나 학생들의 선후배와 같은 위계질서와 조직을 강조하는 경우에서 크게 부각될 수 있다. 의례주의적 형태는 ‘술자리’ 등의 모임이나 의식을 통해 자신의 사회적 위치나 권위를 재확인하려는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경우이다.

반면에 다른 하나는 중간집단을 지향하는 형태이다. 이것은 개인이 원자화되고 소외되어가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집단 속에 의도적으로 참여하거나 동참하려는 경우에 잘 드러나게 된다. 우리 사회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연줄위주의 사회적 관계망의 의도적인 구성은 이와 같은 행위 유형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두 가지 측면은 공동체와 개인이라는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행위 유형이다. 한편 현대적인 개인이 안고 있는 ‘아노미적 병리현상’ 역시 음주문제에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지금처럼 경제적인 위기와 불황에 직면한 상황에서 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은 이와 유사한 행위유형이나 의식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음주문제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우리 사회에서는 음주량이 많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그에 대한 해결방안도 주로 음주량을 줄일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교육과 규제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에서의 음주문제가 그 독특한 음주양태의 문제이며 이러한 음주양태는 문화적인 뿌리가 있는 것이므로 음주량을 줄이는 여러 가지 차원의 규제조치는 일정 정도 한계성을 갖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물론 이와 같이 특수한 문화적인 형태들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대단한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적인 요인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다 보면 보다 다른 차원, 즉 사회문화적인 차원의 해결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며 이러한 모색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연구에 대한 제한적인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

第2節 飲酒問題에 대해 다른 媒介體로 代替시키는 政策的 提案

선행 연구들은 주로 음주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주로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규제를 통해 이루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초점은 한국사회에서의 음주행위는 공동체 규합에 있어서의 매개수단이라는 측면이 강하므로, 그 정책적 대안에 있어서도 공

동체를 규합할 수 있는 다른 매개체 형태의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으로 결론을 이끌었다.

우리는 그 정책을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해 보고자 한다. 한 가지는 주로 음주행위가 강요되는 체제적인 차원에서의 정책이고 다른 한 가지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개인들의 성향을 음주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법이다. 아래의 <表 4-1>은 음주문제와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제시된 선행연구와의 단순비교를 도표화한 것이다.

<表 4-1> 先行研究者와의 單純比較

	선행연구	본연구
정책 제안의 내용	음주로 인한 질병과 사회적 손실비용을 줄이기 위해 음주량을 줄이고 음주문제를 치료하는 방안에 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세수입 인상을 통한 건강 증진기금 조성 • 주류판매의 면허제의 도입 • 알코올 남용 및 중독관리센터 건립 • 절주운동 등의 의식개혁 운동 	우리 사회에서 음주는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매개체의 성격이 강하므로 다른 형태의 건전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다른 매개체 방안에 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활동의 다변화 유도 • 각 단체마다 모임의 목적을 뚜렷이 하도록 지속적 교육 • 세대별로 특징적인 문화운동 육성 • 범칙금 등을 통해 여가활동 증진기금 마련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위의 단순비교에서 나타난 양면적인 정책이란 필시 양 방향으로 다 제시되어야 할 것 같다. 위의 단순비교에서 볼 수 있듯이 외적이며 단기적인 정책의 필요성과 문화적이며 장기적인 대책을 뒷받침할 정책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보다 구조적이며 장기적인 접근을 시도해 보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이 공동체적 논의에서 발견되는 사회문화적 정책대안을 시론적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體制指向的 性格에 關한 政策方向

체제지향적 음주형태는 앞서 살펴 보았듯이 조직내의 권위적인 서열관계나 자신의 일관된 위치를 확인하는 수단으로서 술이 이용되며 이 술은 조직내 엄격한 형식이나 의례의 한 형태로 나타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여러 다양한 조직이 있겠지만 특히 이러한 형태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곳은 기업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조직은 관료제적인 서열관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형식이나 규범은 철저하게 지켜져야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조직내 이러한 서열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신입사원 교육이나 직원교육 등에서 여러 가지 행동들이 진행되는데 그 중에서 술은 상당히 큰 매개체적 역할을 한다. 또한 이러한 행위들은 상당히 권위적이고 의례적인 경우가 많아 그 부작용도 상당부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조직내 권위적이고 의례적인 의식과 행동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권위적이고 수직적 서열관계로 이루어진 조직을 다소 수평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권위적인 음주형태를 바꾸고자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관료제적인 조직내의 서열관계는 불가피하므로 이를 확인하는 행동에 있어 술을 매개로 하기 보다는 다른 매개물을 찾아 보고자 하는 것이다.

가. 垂直的 序列關係의 水平的 變化

우리 사회의 음주행위 유형 중 ‘위에서 아래로’ 권위나 의례의 절

차가 강조되는 경우를 지적하였다. 이처럼 대인관계의 위계적 서열화는 특히 우리 사회의 여러 모임이나 의식(儀式) 등에서 음주양태의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다. ‘술자리’의 강요, ‘술 권하기’ 등은 관계의 규정을 형식화하여 실질적인 의미를 상실하게 할 문제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러한 대인관계의 수직적 측면을 보다 다원화되고 수평적인 측면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몇 가지 노력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먼저 조직이나 집단구성원들의 자연스럽고 자율적인 참여와 개인적인 의사표현의 존중을 들 수 있겠다. 특히 기업내에서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상사, 부하 혹은 동료들과 함께 공동의 목표설정,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및 그 실행에 참여함으로써 조직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참여적 조직은 대체로 동기 부여 과정에서 구성원에게 경제적인 보상과 전 범위의 동기 자극, 그리고 조직의 목표에 대한 호의적이고 책임감있는 의식을 갖게 한다. 뿐만아니라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해 전체 조직내에서 정보가 상하좌우로 자유롭게 이동되고 수용됨으로써 정보자체의 왜곡성을 없앤다.

이와 같은 참여유도 정책은 조직구성원의 전반적인 참여를 통해 수직적인 서열관계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를 다소나마 수평적으로 분화시켜 개선해 나갈 수 있다. 하나의 예로 술좌석을 만드는 대신 서서 마시면서 돌아다니며 담화하는 칵테일(cocktail)파티를 벌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칵테일 파티는 술을 위한 모임보다는 담화를 위한 모임이며, 서열적으로 한자리에 앉아서 교육받는 식이 아니라 계속 다른 여러 층의 사람들을 접촉하면서 평등한 가운데 담화하는 모임을 의미한다.

둘째, 공공성의 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는 시민 개개인의 자발적 개혁의지와 정책적인 운동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공성이란 ‘나 아닌 나’, ‘나 아닌 나로서의 사회’에 대한 신념으로 서로 간에 소통이 될

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정신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식과 의지의 공유는 우리의 행위와 그것에 대한 태도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구성원들로 하여금 대화하게 하고, 대화하는 법을 개발하면서 대화정신을, 다시말해 소통의 윤리를 터득하게 하는 일일 것이다. 일본의 경우와 같이 음주문제와 관련해서 ‘알코올 문제 전국시민협회’를 구성하여 계몽운동을 펴 나가는 것도 시민의식의 자발적인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대중매체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요구된다.

이러한 음주문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앞서 제시된 대처방안들이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지는 쉽게 결론내리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경우 조직내의 의사결정 권한이 영향력 있는 몇몇 사람에게 편중되어 ‘무조건 따르라’는 식의 권위적인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끊임없는 시민의식 형성과 개혁을 위한 다양한 과제 제시는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나. 組織內 序列關係 確認의 媒介體 變化

관료화된 조직내에서 서열관계는 중요하다. 이는 그 조직을 지탱하는 구조원리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조직내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서열관계를 확실히 하려는 행동들이 나타나게 된다. 여기서 술은 상당부분 이러한 행동들의 매개체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술 자체가 갖고 있는 유해성은 물론이거니와 음주행태의 문제점이 여러 면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앞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따라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건전한 방향으로 매개해 줄 수 있는 대체물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정책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직내의 비공식적 조직이나 모임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 마련과 다원적인 활성화 노력을 들 수 있다. 가령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다양한 동호회, 동아리 활동을 통한 모임 방식의 다원화를 꾀하는 것은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운동회나 등산, 게임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모임의 장을 바꾸어 가는 방식이라 하겠다.

둘째로, 특히 직장의 경우, '사보'와 같은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사보는 조직내의 목적과 방법, 문제들은 쉽게 나누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개체 역할을 충분히 한다. 사보는 조직내 커뮤니케이션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경영목표나 방침 등 하향식 전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또 구성원들 스스로 자율적인 목표나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위계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어려움을 조정하는데 커뮤니케이션 통로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모임이나 집단의 매개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입사원(생)이 들어왔을 때 교육적인 매체 역할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술이라는 것을 통해 모임에서의 주법이라든가 모임 자체의 성격규정을 함으로써 신입원들이 갖추어야 할 의례적 측면을 제시하거나 자신들의 사회적 위치를 재확인하려는 문제점들을 보완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적극적인 방법으로서 매개체로서의 음주에 대한 긍정적인 훈련이다. 술 마시는 법과 사귀는 법을 기업조직 차원으로 공개적이며 적극적으로 훈련시키는 방법이다. 술 먹는 예의와 방법을 적극적으로 습득하도록 가르치며 고과점수화하는 방법일 것이다.

매개체로서의 음주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것은 제도적인 규제라는 방어적 방식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게 하는, 다시 말해 대인관계의 매개적 기능을 가능케 하는 것은

술의 제조 및 판매, 그리고 그와 연관된 기업활동이 커다란 사회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술 자체의 상품화뿐만 아니라 음주방식이나 이미지 등 부수적인 것들까지 포함한 술과 관계된 모든 속성에 있어서 상품가치가 있는 것에 대하여 사회적 규제를 하는 방법인 것이다. 따라서 술을 제조하는 업체에서부터 유통, 광고에 이르는 과정에 참여하는 대상 기업들의 기업윤리를 조장하기 위한 각종 교육이나 규제를 만든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특히 소비사회를 대표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광고에 대해서도 공익성있는 책임윤리를 위한 규제나 교육 혹은 사회운동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법적인 규제와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여론참여를 통해 기업-정부(관료)-광고공사 등의 책임있는 운영과 사회적 공공성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어디까지나 2차적인 방식이지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힘들다는 것을 지적해 두어야 한다. 특히 우리사회에서 나타나는 음주유형의 문제는 제도적인 법규정이나 처벌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결국 이것은 문화적 문제이며 따라서 의식적인 시민들의 자율성과 공공정신을 함양하는 사회적 운동이 효율적인 제도장치와 병행하여 작용할 때 비로소 가능해 질 수 있을 것이다.

이상 체제지향적 음주형태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방향을 살펴보았다. 즉 권위적인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으로 바꿈으로써 다소나마 권위지향적이고 의례적인 성향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을 제시했으며, 조직내에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서열관계를 확인하는 수단으로서 술보다는 다른 매개물을 찾고자 하는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체제지향적 음주형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밑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共同體 指向的 性格에 대한 政策

음주행위의 유형이 공동체, 특히 중간집단을 지향하려는 태도나 의식으로 나타나는 경우 우선적으로 구성원들이 집단이나 모임의 성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일차적으로 볼 때 그러한 문화적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 그 사회의 전체 체계와 다양한 형식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은 정부나 관련기관들의 우선적인 정책마련과 대책을 필요로 한다. 이에 현대사회의 개인들이 ‘모임 술’²⁹⁾을 건전한 방향으로, 또는 그러한 모임의 장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가질 수 있는 방안들을 중심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특히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건전한 공동체문화의 육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놀이문화 및 여가(leisure)활동의 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몇 가지 대안들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① 한국사회에서 음주는 공동체를 규합하는 하나의 매개수단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음주가 아닌 다른 여가활동을 통해서 공동체의 모임을 유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여가활동의 다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민간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문들과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할 부문들을 구분해서 다양한 여가활동을 추구하는 민간단체들, 클럽 등을 활성화시키고 이러한 기구들과 공간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보조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독서클럽이나 스포츠클럽 등 다양한 취미활동을 펼 수 있는 클럽문화의 활성화 방안을 들 수 있겠다.

② 최근에 사회적 문제로 자주 논의되는 청소년들의 음주와 관련

29) 여기서는 술이 일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모임을 위한 매개물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것도 정도가 지나치면 그 의미나 목적이 전도되어 ‘술모임’과 다름 없게 된다.

해서 이들 또래집단끼리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에는 먹는 것을 위한 놀이 공간밖에 없다는 외국인들의 비판에 대하여 아직 우리들은 무감각하다는 것이다.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의 절대적인 부족은 청소년들을 음주나 유흥업소 출입 등 성인들의 여가문화를 아무런 여과없이 받아들이게 하는 주범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그들에게도 음주는 또래집단끼리의 공동체적 규합과 정체성 확인이라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적 규합의 움직임은 바로 일탈적인 욕구와 연결되는데, 이러한 음주행위는 음성화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형태의 규제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기 힘들다. 따라서 음주행위 자체가 매개물로 간주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먼저 청소년들이 자기 또래집단끼리 마음껏 어울릴 수 있는 여가활동의 공간을 다양한 차원에서 확보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청소년의 문화공간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이러한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③ 세대별로 특징적인 문화활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세대별의 특징적인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입지가 대단히 좁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문화활동 여건 조성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다. 즉, 청소년이나 중·장년,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각 세대에 알맞는 활동이 계발된다면, 이것이 매개가 되어 건전한 공동체 문화가 형성되고 각 세대간 전수가 가능해 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단체와 정부 및 유관기관들의 협조체제가 필요하다.

이상의 논의들은 여가라는 극히 한정된 범위 안에서 다루어졌지만 이러한 문화적 차원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시민 개개인의 의식변화

와 함께 사회 제도적인 차원의 지원방안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몇 가지만 예시해 보면, 첫째 음주로 인한 범칙금 사용에 있어서 그것을 소극적인 측면에서 사용하기 보다는 위에서 얘기했던 청소년 및 여러 단체의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한다면 효과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둘째, 일반 음주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정부가 판매 및 유통부문의 연계하에 입체적으로 시도함으로써 건전문화를 조성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조성기, 1997). 셋째, 정부나 공공기관들의 형식적인 음주교육 프로그램과 구분하여 보다 많은 개인이나 집단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 프로그램 등의 개발 및 운영이 시급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현대사회의 개인들이나 집단에 요구되는 중요한 사실은 인간관계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의미를 되새겨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 커다란 분석틀로 제시한 전통과 현대라는 구분은 사실 이러한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틀이 단지 공동체와 개인의 범주 또는 합리적 관계의 여부 등에 한정되고 있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현대의 합리적 인간관계의 추구만은 아닌 것이다. 다시 말해 음주라는 매개를 통해서만 관계를 맺고 통할 수 있는 비인격적 관계로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인간적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시도와 노력들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21세기의 문턱에 선 한국사회는 이제부터라도 인간주의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때가 된 것이다.

결국 한 사회의 음주문제는 얼마나 그 나라가 인간주의적 가치문화를 진작시키는가, 얼마나 인간적 시민사회로 나아가게 하는가 하는 사회문화운동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음주를 위한 음주가 아니라 그 조직의 뜻과 사업, 그리고 힘을 기르기 위해 하는 소박한 음주행위는

이제 인간중심주의의 가치관을 위한 음주행위로 바뀌어야 할 것 같다.

음주는 어디까지나 인간을 알기 위한, 인간과 친하기 위한, 인간을 살리기 위한 봉사의 행위로 시작하고 끝내야 하며 그런 봉사정신으로서의 음주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書經에서도 경고하였듯이 크고 작은 나라가 술 때문에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고, 여러 층의 개인들도 술 때문에 패가 망신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실은 모든 시민들이 명심해야 할 교훈이다. 우리 모두가 그 대책 강구와 실천에도 간단없이 힘써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 권지현, “부모의 음주가 자녀의 약물사용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7
- 김장태, 『유학사상과 유교문화』, 전통문화연구회, 1995.
- 김광기, “음주양태 및 음주관련 문제에 대한 공중보건학적 연구”, 『대한보건 협회지』, 제22권 제1호, 1996.
- 김동일, 『청소년 음주와 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 김상균 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길잡이』, 나남출판, 1996.
- 김선숙,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음주행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6.
- 김성이, “음주문화 그에 대한 대책”, 『주류공업』, 1997.
- 김지하 외, “공동체문화 제3집”, 『공동체』, 1986.
- 경향신문, 1995년 9월 11일.
- 노인철·서문희·김영래, 『음주의 경제사회적 비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 다카스 도시아키, 『술과 건강』, 박윤중·안용근 역, 전파과학사, 1992.
-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민주평통>의식개혁 칼럼집』,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95.
- 동아일보, 1995년 8월 26일자.
- 류병호, 『술 텔레비전』, 여민, 1994.
- 문화일보, 1995년 12월 5일.
- 신용하 편저, 『공동체이론』, 문학과 지성사, 1987.

- 여중철 외, 『한국문화의 진단과 21세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 이명선 외, “산업재해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요인에 관한 연구”, 『예방의학회지』, 제22권 제3호, 1975.
- 이영자, 『의식의 일상성』, 『한국인의 일상문화』, 한울, 1996.
- 이종한, “습관성 음주자의 성격에 관한 일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9.
- 이태진, 『한국사회사 연구』, 지식산업사, 1986.
- 이필도·이현송·배화옥, 『가정의례의 사회경제적 비용추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 임재해, 『민속문화론』, 문학과 지성사, 1986.
- _____, 『한국민속과 전통의 세계』, 지식산업사, 1991.
- 조성기, “우리나라 음주문화 실태와 알코올 문제 해결방안”, 『주류공업』, 1997.
- 조성문, “권위주의와 과잉간섭주의”, 『한국의 시민윤리』,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1991.
- 주류문화, 10월 창간호 및 12월호, 1988.
- 한국고문서학회, 『조선시대 생활사』, 역사비평사, 1996.
- 한용득, 『冠婚喪祭』, 흥신문화사, 1982.
- 한태선, “조선사회의 신분축점과 그에 따른 규범형성 연구”, 『전통문화연구』, 제3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 _____, 『21세기 한국시민사회론』, 경문사, 1998.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4.
- _____, 『한국의 사회지표』, 1996.
- INTERNET KINDS 자료
- SBS 보도국 기자들 엮음, 『한국인과 술에 관한 48가지 리포트』, 서지원, 1997.

- YMCA, 『전국 YMCA 21세기 지역만들기 시민운동 보고서』, 1994.
- Aron, Raymond, *Main Currents in Sociological Thought*, New York, Penguin Books Ltd., 1967.
- Baum, Gregory, *Religion and Alienation*, N.Y.; Paulist Press, 1975.
- Bellah, Robert N., *Emile Durkheim on Morality and Society: Selected Writings*,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3.
- Coser, Lewis A., *Masters of Sociological Thought*, 신용하·박명규 역, 『사회사상사』, 일지사, 1978.
- Durkheim, E., *Suicide: A Study in Sociology*, trans. J.A.Spaulding and G. Simpson and ed., with introduction by G.Simpson, Free Press of Glencoe, 1951.
- Giddens, A., *The Class structure of the Advanced Soceities*, London: Hutchinson and Company, 1973.
- Golding, P. edit, *Alcoholism: a modern perspective*, MTP Press, 1982.
- 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Facts about Alcohol and Alcoholism*, 1980.
- Nisbet, R.A., *Social Change and History:Aspects of the Western Theory of Development*, N.Y.: Oxford University Press, 1969.
- Toennies, Ferdinand, *Commnity and Society*, New York, Harper & Row, 1957.
- Weber, Max, *From Max Weber, edit. Gerth and Mill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8.